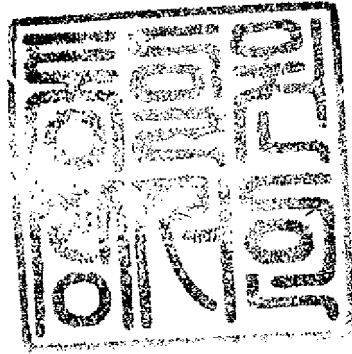


회담대책개발 기초자료

남북종교교류 관련 자료집

1995. 9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목 차

1. 남북종교교류 경과	1
가. 개황	
나. 종교별 교류 경과	
다. 기간별 교류 경과	
2. 종교별 접촉·교류 현황	7
가. 개신교(기독교)	
나. 불교	
다. 천주교	
라. 천도교	
마. 기타 종교	
3. 남북종교교류의 문제점	22
가. 북한의 종교정책	
나. 문제점	
4. 남북종교교류 관련 주요 접촉 추진사례	28
* 부록 I 남북종교교류 관련 주요 제의 및 동향	53
* 부록 II 남북종교교류 관련 주요 문건	77

부 록 Ⅱ 목 차

1. 제1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 공동성명
('81. 11. 5, 오스트리아 비엔) 79
2.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 공동성명
('82. 12. 5, 핀란드 헬싱키) 85
3.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KNCC 통일선언, '88. 2. 29) 92
4. 민족통일에 대한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선언문('88. 7. 5)
..... 119
5.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리온선언('88. 11. 25) 129
6. 세계교회협의회 정책성명('89. 7. 27) 136
7. 「평화통일희년을 향한 도쿄회의」 합의문('90. 7. 10-7. 13)
..... 151
8. 제24차 「북미주 기독교학자대회」 북한측 발표문
('90. 8. 9-8. 11, 북경) 159
9. 제3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리온협의회」 합의서
('90. 12. 4) 171

10. 제25차 「북미주 기독교학자회 연례총회」 북한측 발표문 ('91.5.28-5.30, 미국 뉴욕)	177
11. 제2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쿄회의」 결의문('91.7.12)	200
12. KNCC 권호경 총무의 설교문('92.1.12, 평양 봉수교회)	206
13. 제26차 「북미주 기독교학자회 연례총회」 북한측 발표문 ('92.7.9-7.11, 미국 뉴욕)	222
14.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문서 및 예배문 ('92.8, KNCC 작성)	234
15. 제3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쿄회의」 결의문('92.10.22)	246
16.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앞 초청장('93.3.26)	249
17. 남북 부활절 연합예배 공동예배 메시지 ('93.4.11, 남:여의도광장, 북:평양 봉수교회)	251
18. 범종단 남북교류추진협의회 남북이산가족 자유왕래 촉구선언문 (안) ('93.5.21)	252

19.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기도문('93. 8. 15. 평양 봉수교회 작성)	256
20. 북한 교회재건 실천강령('93. 9. 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59
21.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앞 편지('94. 1. 24)	262
22.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앞 편지('94. 2. 1)	264
23.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앞 편지('94. 2. 24)	267
24.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앞 편지('94. 3. 2)	270
25. 동학혁명(갑오농민전쟁) 100주년 공동기념을 위한 남북천도교 대표들의 제1차 실무접촉 공동합의문('94. 3. 10, 북경)	272
26. 대종교 총전교와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사이의 공동합의문('94. 3. 14, 북경)	274
27. 천도교 중앙총부 총무원장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앞 편지('94. 3. 17)	278

28. 제4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도교회의」 결의문 ('94. 5. 31-6. 2, 재일본 한국 YMCA)	280
29.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민족자주통일 불교운동협의회」의장 지선스님앞 편지('94. 6. 1)	286
30. '95 평화통일 공동기도문('95. 1. 1, KNCC 작성)	292
31. 제4차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 국제협의회」 ('95. 3. 28-3. 31, 일본 교토)	296
○ 남북교회간 실무접촉시 공동선언문('95. 1. 27-1. 28, 북경)	
○ 공동선언문	
○ 공동합의문	
○ 북한측 발표문	
32.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 지선스님앞 편지('95. 4. 17)	319
33. 조계종 문화사회부장의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앞 편지('95. 4. 22)	321

1. 남북종교교류 경과

가. 개황

- 남북한은 분단이후 '70년대까지 상호 종교교류가 없었으며, 다만 남북의 종교 관련단체나 종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접촉과 교류를 제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음.
 -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이 종전의 극단적인 반종교정책을 유보한 가운데 해외에서 남북한 종교인들의 접촉이 몇차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는 북한이 종교를 대남통일전선의 구축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말그대로 접촉을 위한 접촉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음.
-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종교인들은 국제종교회의나 제3국 접촉을 통해 남북종교교류에 관한 제의를 하는 등 외형상 교류·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북한측이 종교를 정치도구화하려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의 제41차 KNCC 총회(서울)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기독교 대표단간 예비실

무접촉('92. 2. 10)이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나, 북측이 그들 대표단의 촬영기자 동행과 서울 체류기간 중 직통 전화사용 불허 등을 이유로 총회참가를 거부함에 따라 무산되었으며

- 특히 '95년의 경우에는 광복 50주년기념 회년에배 등 남북 공동행사를 위하여 각 종교계 대표들이 다투어 대북접촉·교류에 나섰으나 우리측의 남북공동행사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간 회담제의를 북측이 거부함으로써 전부 무산되었음.

나. 종교별 교류 경과

- 지금까지 남북종교교류는 우리측 개신교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불교, 천주교, 천도교, 대종교 등에서도 간헐적으로 대북종교교류를 제의하거나 접촉을 해왔음.
- 개신교의 경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회의('81. 11)를 계기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자와의 대화」와 같은 유럽채널, 글리온회의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남북기독자 도교회의, 「북미기독학자회의」 등 4개 채널을 통해 남북종교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 불교는 「남북불교도 교류추진위」결성('88.11.15) 이래 LA 관음사에서 「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법회」를 열어 왔고
- 천주교는 '80년대 초부터 바티칸라인을 통해 북한당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음.
- 이밖에 남북천도교 교역자들간에는 제4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총회('91.10.27-11.2, 네팔)에서의 접촉, 오익제 교령·북한 유미영 위원장간의 접촉('93.10.19-20, 북경)등이 이루어졌음.
- 재미 김성락목사가 남한출신 종교인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81.6)한 이래 우리측 종교인들의 여러차례에 걸친 북한방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종교인들이 남한을 직접 방문한 적은 한번도 없었음.

다. 기간별 교류 경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남북종교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90.8월부터 '95.7월말까지

- 우리측 종교인들이 당국에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한 총 사례는 175건(730명)이며
- 이 중 승인된 사례는 140건(652명)으로써 건당 80%(인원 89%)의 승인율을 기록하고 있음.
- 한편 승인된 사례중 36건(335명)의 접촉이 성사됨으로써 접촉 성사율은 총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21%, 인원을 기준으로 할때 49%에 불과함.

< 표* > 남북종교분야 인적교류현황 ('89. 6. 12- '95. 7. 31)

(건/명)

신 청	승 인	불 허	처리중	접촉·성사
175(730)	140(652)	33(73)	2(5)	36(335)

- '94. 1 이후 '95. 7 까지 우리측 각 종교단체 및 관련인사가 북한종교단체·인사와의 접촉·교류를 위해 총 52건의 접촉신청을 하였으나 이 중 승인된 것은 37건이었음.

- 이 가운데 '94년중 이루어진 남북천도교간 북경접촉 ('94. 3. 9-3. 10), 남북대종교간 북경접촉 ('94. 3. 12-3. 14) 등과

- '95년중의 남북기독교 교토회의('95. 3. 28-31), 남북불교계 인사접촉('95. 4. 22 및 '95. 5. 23-24, 북경), 미주한인교회 평화통일희년협의회 제4차총회('95. 6. 28-29, 미국 LA) 등만이 성사되었음.
- '94년 2. 24 북한천도교 중앙지도위 위원장 유미영이 우리측 천도교 중앙총부 오익제 교령에게 「동학혁명100주년 남북공동 기념행사」개최와 관련 접촉을 제의해 온 바
 - 3. 9-10 양일간 북경에서 제1차 실무접촉을 갖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으나, 동 행사는 무산되었음.
- 한편 '94년 3. 12-3. 14 북경에서 대종교측(구 단군교, 총천교:안호상)과 북한천도교회측(위원장:유미영)이 3차례 접촉을 가진 바 있음.
 - 이 접촉에서 양측은 통일운동의 공동과제와 상호관심사를 토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음.
- 이밖에도 '95년중 남북간에는 광복 50주년기념 공동행사개최와 종교인교류를 위한 각종 제의 및 제3국 접촉이 있었음.

- 북한측은 정당·단체연합회의('95. 1. 24)를 통해 해방 50년 공동경축 및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을 협의·확정하기 위한 대민족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 8. 15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측 종교단체·인사를 대상으로 개별적 접촉·교류를 제의하는 편지를 발송하거나 제3국 접촉을 가져 왔으나 성사되지 못했음.
- '95. 8. 21-29 문민정부 출범이후 최초로 궐선희 목사(소망교회)가 방북하였음.

2. 종교별 접촉·교류 현황

가. 개신교(기독교)

- 기독교의 대북접촉 채널은 1) 유럽채널,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채널, 3) 제일대한기독교총회 도교회의 채널, 4) 북미기독교학자회의 채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1) 유럽채널 :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들의 대화”

- 이 채널은 북한이 해외의 반한·반정부 인사들과 진보적 기독교인들을 규합하여 북한의 통일정책을 홍보하고 대남정치 선전에 이끌어 들이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서
 -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주도
 - 회의에서는 항상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외세 배격, 대남비방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
- 이 채널로 인해 북한 당국자들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북한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존재가치가 부각되어 또 다른 형태의 채널이 가동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였음.

- '81. 11 오스트리아에서의 제1차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제2차 ('82. 12, 핀란드), 제3차 ('87. 12, 오스트리아), 제4차 ('90. 2, 핀란드), 제5차 ('91. 1, 독일) 회의를 개최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채널 : 글리온회의 등

- KNCC는 제4차 한국교회협의회 공동결의문('81.6)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문제를 연구하며 촉진하는 위원회나 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독일 교회가 재독 한인들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 이에 따라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설치('82. 2), WCC에 협조요청

-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

- 첫번째 계기는 일본 도잔소에서 개최된 '동북아의 평화와 정의 협의회' (일명 도잔소협의회)였는 바, 이는 KNCC의 지원요청을 받아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CCIA/WCC)가 주최한

것임.

- 세계 20개국에서 65명의 대표자가 참석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선언서(일명 도잔소 선언서)를 채택
- 이 도잔소협의회 이후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국제위원회가 주선하여 우리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단과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이 공식적 만남의 채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
- '86.9 스위스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제2차('88.11, 스위스), 제3차('89.4, 미국), 제4차('89.9, 일본), 제5차('90.12, 스위스), 제6차('91.10, 캐나다) 회의를 개최

3) 재일대한기독교총회 도쿄회의 채널

- 일본내의 기독교단체연합회인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총회장: 김형식)는 글리온선언의 효과거양 및 남북기독교인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쿄회의’를 개최('90.7)하였음.

- 남북교회 및 세계 각지 한인교회 관계자들이 참석
- '95년 한반도 통일의 회년 선포원칙을 재확인하고 회년 공동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 ※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들외에 남한의 개신교계 보수 교단의 일부 및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목회자들, 재일 대한기독교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가
- 또한 이 채널은 글리온 선언을 재확인하는 “평화통일 회년을 향한 도교회의 합의문”을 도출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일본에서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 제2차 회의('91.7), 제3차('92.10), 제4차('94.5) 회의를 개최

4) 북미기독교학자회의 채널

- 북미기독교학자회는 '67년 미국과 캐나다에 유학하고 있었던 기독교자 대학원생, 신학생, 교수와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결성한 협의회로서, '88년 로스엔젤레스 대회(제22차 연례대회)에서

‘분단시대와 이산가족’을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후 ’89년부터 남과 북, 해외에 있는 기독교자들을 초청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해 왔음.

- ’89년(제23차 연례대회)에는 남과 북의 초청인사들이 거의 모두 참석치 못하였으며
- ’90년(제24차 연례대회)에는 북경에서 개최되어 남측 인사들이 참석치 못하였음.
- 이후인 ’91년(제25차)과 ’92년(제26차)에는 남북 양측이 모두 참석하여 학술회의 외에도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졌음.

5) 기 타

- 이밖에도 ’80년대이후부터는 해외 한인 기독교인들의 방북과 연변 등 제3국에서의 북한·해외동포 기독교자들간의 대화채널이 계속되어 왔고, 「한기총」·「선명회」 등과 같은 특정교단의 북한종교단체·인사와의 부분적 교류가 이루어져 왔음.
- 해외기독교인들의 방북사례는 재미 김성락 목사(’8.16), 흥동근 목사(’81.9)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 특히 지난 '92년에는 북측대표단의 제41차 KNCC총회(서울)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KNCC·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간의 첫 예비실무접촉('92.2.1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이 열리기도 하였으나, 북측이 사진촬영기자 동행 및 직통전화 불허를 구실로 동 총회에의 참가를 거부함에 따라 무산되었으며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 홍콩의 금강산개발주식회사(대표 박경윤)를 통해 쌀 1만가마를 북한에 전달('90.5)하였고
- 또한 「한국기독교선명회」의 “북한식량지원 사업개요”의 수립·추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남북나눔운동본부”를 통한 대북종교단체·인사 접촉교류 움직임 등이 일고 있음.

나. 불 교

- 불교계는 '88년의 '7.7선언' 과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의욕이 표출하는 가운데 재야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 불교본부'의 결성('88.5) 등을 통한 남북불교간 실질적 교류·협력에 임하고 있음.

- '88.6에는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 불교본부」가 조선불교도연맹에 “남북불자공동기원법회”를 제안하였으며
- '88.7에는 기대원 스님(하와이거주)이 당시 북한사회과학원장 황장엽의 초청을 받아 남한출신 승려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였음.
- ※ 평양구룡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위원장과 “통일기원의식” 봉행
- 한편 대승불교승가회(회장 송산)도 민족통일기원대법회(강화도 전등사)를 갖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대승보살의 결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한 불교전통사찰 순례방문과 불교학술문화교류”를 제의하였음.
- 이후 불교계는 범불교도 인사로 「남북불교도교류추진위원회」를 결성('88.11), “남북불교합동법회 개최” 등 4개항에 관한 대북제의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불교교류의 장을 열었음.
- 최초의 남북 불교인들간의 공식접촉은 LA관음사에서 열린 ‘조국통일기원 불교도합동법회’('91.10)인데, 여기서는 아무런 예비회담도 없이 남북불교대표가 각각 의견을 개진하

는 수준에 머물렀고, 회의의 명칭만을 합의하는 가운데 어떤 합의서나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났음.

※ 이 회의는 후에 “남북불교대표자회의”로 명칭을 변경

○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에서 북측 불교단체 및 인사와의 남북공동행사 및 접촉·교류를 위한 초청장을 보냈으나, 실무협의만 몇차례 이루어졌을 뿐 성사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음.

- ‘남북평화통일기원 영산예술제’ 초청에 따른 남북실무자회의(’92.2, 일본 도쿄)가 이루어졌으나, 북측은 재일본조선불교도협회 홍봉수 회장의 축사만을 전달해 왔음.

- ‘남북평화통일과 세계인류를 위한 불사리 이운법회’ 개최에 따른 실무자회의(’92.8.4, 일본 도쿄)가 있었으나, 여기서도 북측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 정치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쳤으며

- ‘남북합동공동법요식’ 개최 관련 북경접촉(’95.4 및 ’95.5)이 이루어졌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음.

※ 「평불협」 신법타 부회장의 3차례에 걸친 방북(’89.7,

'91. 4, '92. 4)을 통해 북측과의 남북공동행사개최문제협
의가 있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결

○ 한편 원불교측에서는 「북방교화위원회」('79. 4)를 중심으로 남
북교인간 공동행사 및 접촉·교류보다는 학술교류에 중점을 두
어 추진해 왔음.

- 제3차 조선학국제학술회의('90. 8, 일본 오사카)에서 우리측
김영두(원광대 교수)와 북측 박승덕(주체사상연구소장) 등
이 만났으며

※ 북측에 「원불교전서」 전달

- 제4차 조선학국제학술회의('91. 10, 일본 오사카), 제5차회
의('92. 8) 등에서도 우리측 김인철(전 원불교 교정원장)·
김도종(원광대 교수)와 김천식(김일성대 철학부 교수)·박
승덕 등이 만났음.

- 이밖에도 우리측 원불교 관계자들은 국제고려학회 주최 「통
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 남북학자 학술회의('93. 8, 북
경), 제2차 남북학자학술회의('94. 2, 북경) 등에서 북측대
표와 만났으나, 남북종교교류를 위한 실무적 협의차원에 그

쳤을 뿐 성사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음.

다. 천주교

- 천주교의 경우는 '70년대부터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의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81)과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행사('84)를 준비하는 가운데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이러한 교회적 관심이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바티칸 라인을 통해 북한 당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였음.

※ 장익 신부는 이러한 라인 선상에서 비동맹 특별각료회의 ('87.6, 평양)에 참석

- 이후 교황청 대표단의 평양 방문과 바티칸에 초청받은 북한 천주교인들의 교황 알현, 북한의 로마 우르바노 신학대학에의 유학생 파견 등을 계기로 남북천주교간 접촉·교류 움직임이 활성화되었음.

- 북한에서 「조선천주교인협회」 결성('88.6), 평양 장충성당과 봉수교회의 건립('88.10) 등으로 인해 남북교류창구가 마련되었고
 - 우리측의 북한선교위원회에서도 제44차 세계성체대회 공식행사의 일환으로 「평화통일기원미사」(도라산 전망대)를 주관하였음.
- 이후 북한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천주교계는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91 평화통일 기원미사”에서 「대북제의 5개항」을 발표함과 아울러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안)의 내용을 확정하면서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변경하는 등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대북제의 5개항은 i)북한교회 신학생 양성요청시 적극 지원 ii)남북신자 공동참회에절 iii)남북한 합동성지순례 iv)예수부활 대축일 등 3대 대축일과 평화통일 기원미사 합동봉헌 v)60세 이상 이산가족신자 고향방문 실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는 한국교회가 남북관계와 북한체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

해 나가면서 북한교회와의 정상적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음.

-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우리측 천주교계의 제의나 관련단체·인사접촉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전반적인 남북관계 역시 경색됨에 따라 남북천주교인간의 만남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라. 천도교

- 천도교는 수운대선사의 순도정신과 갑오동학혁명, 3.1독립운동 등의 역사를 이어받아 북측과의 공동행사 개최 및 남북천도교인간의 접촉·교류를 추진해 왔음.
 - 우리측에서는 포티 130년을 기념하는 천일기념식('89. 4. 5)에서 오익제 교령이 남북 천도교인의 교류와 상호 방문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밝히고, 「천도교남북교류추진위원회」를 발족('89. 7)시켰으며
 - 북한 역시 '86년 4월에 천도교 창도 126주년 기념행사('86. 4)를 개최한 후 남북교류·접촉에 적극적 관심을 표출하기 시작하였음.

- 남북 천도교 교역자들간의 첫 접촉은 제4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총회('91. 10,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루어졌음.
 - 이 만남에서 북측 정신혁(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 위원장)은 우리측에게 북한 천도교 간부들이 '92년 4월 4일 천일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 남한 천도교 교역자들이 평양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하였음.
 - ※ 이에 따라 임운길 교화관장은 일본 신호교구를 방문하여 초청장을 발송하고 국제전화로 판문점 실무회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불성사
- 한편 천도교 오익제 교령은 북한의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유미영 위원장과 북경에서 남북 분단사상 처음으로 종단 대표끼리 두차례('93. 10)의 접촉을 가졌음.
 - 이 접촉에서 남북 천도교대표는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기로 합의문을 작성· 발표하였으나, 성사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함.
- '94년중에도 북경에서 남북천도교관계자간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실무회담('94.3)이 열렸으나 북한핵문제로 인한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무산되었고, 현재까지 남북천도교간 공동행사 및 천도교인간의 상호교류는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마. 기타 종교

- 이밖에 민족종교, 그중에서도 대종교와 유교의 경우도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종교인간 접촉·교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창립 4주년('89.11)을 맞이하여 남북평화통일을 촉구하는 민족종교지도자대회 및 기념강연회를 갖고 '화합과 참여의 시대'를 열어 국운을 바로잡고 남북평화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 대종교(총전교 권태훈), 한얼교(법통 신정일), 단군교(대표 김해경), 환종교(대표 이선동) 등 민족 종단·단체 지도자들은 개천절을 '90년대 남북통일의 원점으로 삼고 백두산 정상에서의 남북공동천제봉행계획 등을 추진

- 대종교는 1909년 교조인 나철 대종사에 의해 새롭게 태동된

것을 기념하는 중광 80주년('89)을 계기로 부흥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안호상 총전교와 북한의 유미영 천도교 위원장이 북경에서 상호 교류를 도모키로 합의하는 공동 합의문을 작성 발표('93.3)하였으며

※ 안호상 총전교, 김선적 총무원장의 밀입북('95.4.11-16)으로 인해 남북종교인간 공동행사개최에는 역작용 초래

- 이밖에 유교나 증산교, 환중교 등은 아직까지 남북 종교교류에 뚜렷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북한지역에 연고를 가진 종단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교류활성화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임.

3. 남북종교교류의 문제점

가. 북한의 종교정책

- 북한의 종교정책은 '80년대 이후 적지않은 변화를 겪어왔으나, 그 본질적 변화보다는 전술적 차원에서 변화했을 뿐임.
 - 이는 우선 '90년대 이후 김일성의 해석순화에 따른 것이며
 - ※ 김일성은 비밀교시를 통해 “남조선인구의 약 반정도가 신자이며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화책을 구사하라”고 지시
 - 주체사상의 “영원성”을 종교교리의 “영생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 ※ 북한당국은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수령이야말로 인민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수여하는 장본인”이라고 선전
- 현재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종교가 없으며, 다만 있다면 극소수의 “지하교회”가 있을 뿐임.

- 북한의 모든 종교단체는 당·정의 전위기구 역할을 하는 선전단체에 불과하며

- '92년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외세개입 및 국가사회질서파괴 등과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음.

- ※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 (1992. 4. 9 개정헌법 제68조)

- 그동안 북한은 종교를 통일전선전술차원에서 그들의 체제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주체사상 → 민족적 정통성」으로 연결시키는 주도면밀한 작업을 해 왔음.

- ※ 개성 안화사 복원('89), 광법사 복원('92), 동명왕능 개건('93), 단군능 개건('94.10.11)등으로 정치적 정통성을 계속 축적

나. 문제점

- 남북종교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종교인들이 종교교류를 순수한 종교적 만남과 교류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북한은 해방이후 줄곧 종교를 “아편”시 하는 가운데 정치적 이용물로 간주해 왔으며 통일전선의 구축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종교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 북한은 당의 선전기구로 종교단체를 조직, 우리측 종교단체들과 연계를 시도해 오고 있음.
 - 따라서 북한 종교인들은 순수한 종교활동보다 정치선전에 치중하면서 우리측 종교인들로 하여금 북한정책에 대한 지지와 대남선전을 선동하고 있으며
 - 국제적 종교회의에도 대표단을 파견, 남북종교인간의 연합선전구축을 시도하는 동시에 남북종교인들의 국제적 연대강화를 기도하고 있음.
- 반면 우리측 종교인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북한실체에 관한 정

보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며, 북한과 같이 어떤 하나의 단일 협의체를 조직, 대북종교교류 창구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음.

※ 최근 일부 종교계의 경우 많은 자금을 들여서라도 대북 접촉을 선점하려는 경향이 농후

○ 또한 남북한 종교인들간의 만남이 이른바 「동상이몽」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북종교교류가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음.

- 우리측은 순수한 종교활동을 통해 북한선교나 포교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북한 종교인과의 접촉·교류를 추구해 온 데 반해
- 북한은 통일구호를 내세우면서 대남전략적 효과만을 기대해 왔음.

※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우리측의 일부 진보적 성향의 종교인들만을 상대로 접촉·교류에 치중하게 하였고, 반면 우리측 종교단체는 북한의 종교인을 짝사랑하는 양상을 초래

교회내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다 폭넓은 공중의 영역에서 한반도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고 또한 이를 유포하는 일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심히 부적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중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과 이 세계교회협의회 정책성명 본문 및 배경문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이 범세계적인 냉전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서간의 대결과 무기경쟁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한반도라는 딜레마의 짐을 가볍게 해 줄 것이다.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이 세계와 한반도를 분열시키고 있는 이념적인 장벽과 적이라는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증오심과 적대감을 극복하는 것은 정치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평화교육의 중심적인 과제이

※ 연극 “성황당”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그들 스스로 “지구상에 단하나의 종교와 미신이 완전히 없어진 나라”로 자부

4. 남북종교교류 관련 주요 접촉 추진사례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81.11.3	<p>제1차 「조국통일을 위한 해외동포 기독교자와의 대화」(오스트리아 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전선」의장·해외동포 원호위원회 위원장 허정숙, 조선기독교도연맹 부위원장 김득룡 등 참석 ○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통일을 위한 기독교자의 자세, 조국통일과 외세 등 논의 	
1982.12.3 -5	<p>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해외동포 기독교자와의 대화」(핀란드 헬싱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평통」부위원장 전금철, 조선사회과학원장 양형섭 등 참석 ○ 남한의 정치사회문화, 주체사상과 조국통일,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김대중의 석방문제 등 논의 	
1985. 9.22	<p>우리측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대표단, 북한 지역에서 단독 예배와 미사(평양 고려호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전 : 지학순 주교 (천주교 원주교구장), 황준근 목사 (엘림교회)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86. 9. 2	<p>WCC주최 제1차 글리온회의(스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6명) : 강문규(YMCA 총무), 김봉록(한국감리교회장), 김준영(WCC 중앙위원), 김소영(KNCC 총무), 김원식(전 KNCC 총회장), 이영찬(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 북한측(5명) : 김재연(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 김남현(조선기독교도연맹 신학교수), 김운봉(조선기독교도연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지윤(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총무), 김혜숙(통역관) 	* WCC 주선으로 이루어진 남북 종교인간의 최초 모임
1987. 6.29	<p>「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국가 각료회의」(평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교회협의회 대표단(10명) 및 천주교 장약신부(바티칸 대표) 참가 	* 북한 주최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87. 12.	제3차 「조국통일을 위한 해외동포 기독교자와의 대화」(오스트리아 빈) ○ 북측 제1, 2차 회의 참여자들 참석 ○ 반전·반핵평화운동, 한반도 핵무기 철거 문제 등 논의	
1988. 7. 20 -30	기대원 하와이 대원사 주지, 북한 사회과학원 장 황장엽 초청으로 방북 ○ 평양 구룡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호와 만나 통일기원의식 봉행 및 대원사 주최 제4회 불교세미나 초청문제 협의	
1988. 10. 30 -11. 14	장익·정의철 천주교 신부, 교황청 특사자격으로 방북 ○ 평양 장충성당에서 미사봉헌 및 교황이 보내는 성작·성합 등 전달	
1988. 11. 23 -25	WCC 주최 제2차 글리온회의(스위스) ○ 참석자 : 남북한 및 캐나다·미국·체코·호주 등 대표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11명) : 이의호(예장대표), 장기천(기감대표), 박봉양(기장대표), 김성수(성공회대표), 김석태(구세군대표), 조용술(복음교회대표), 김형태·김준영·강문교(WCC 상임위원), 윤영애(여성대표), 이효재(교수) - 북한측(7명) : 고기준·김운봉·이성봉 목사, 김남혁, 엄영손, 이문영, 김혜숙 ○ 8개항의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 채택 - 7.4 공동성명의 원칙하에 통일성취, 외세배격, 군비축소, 불가침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신뢰성 회복, 주한미군철수, UN사 해체, 핵철수, 각종 교류의 실시 등 제의 ○ 남북한 교회간의 교류를 정기화하여 1995년(해방 50주년)까지 해마다 광복절에 전세계 WCC 가입 교회에서 낭독할 '한국통일을 위한 기도문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89. 2. 17	재미 박창득·남해조·조용희 신부 및 재미교포신자 5명 방북	
1989. 4. 25 -26	<p>NCC 주최 「한반도 평화와 통일세미나」(워싱턴)</p> <p>○ 참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박종하(한신대 교수), 권호경, 박봉배(기감 선교국 총무) 등 5명 - 북한측 : 고기준 등 4명 <p>○ 조선(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의회 명칭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캠페인 선언서」 채택</p>	
1989. 6. 1 -3	<p>제23차 「북미기독교학자회의 연례회의」(미국 뉴저지)</p> <p>○ 주제 :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의 통일지향사상으로서의 발전 가능성</p> <p>○ 참석자 : 북미 기독교자 대학원생·신학생·교수·목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에서는 송기득(목원대 교수)만이 참석 	<p>* '67년 미국과 캐나다에 유학하고 있던 기독교자 대학원생·신학생·목사·교수 등이 결성, '89년부터 남·북·해외 기독교자들을 초청하였음.</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89. 6. 5	문규현 신부, 통일기원 미사의 남북동시봉헌을 위해 방북	
1989. 6.26 -7.18	<p>신법타 LA 수도사 스님 방북,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호와 대담</p> <p>○ 남한불교계가 초청하면 언제든지 방한할 것이며 서의현 종단협의회 회장에게 보내는 백지불상을 전달</p>	
1989. 7.26 -8.15	문규현 신부, 「전대협」 대표로 임북한 임수경의 귀환 동행을 위해 방북	* 임수경과 함께 판문점 통해 귀환
1989. 7.29 -8.12	재일교포 이대경 목사 방북	
1989. 9.29 -30	<p>일본 NCC 주최「한반도 평화와 통일 세미나」(도쿄)</p> <p>○ 참석자</p> <p>- 우리측 : 권호경, 강문규(KNCC 통일위), 유경재(목사) 등 10명</p>	* 북측에 신학서적 300여권 전달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 : 이철(단장, 연맹부위원장), 김운봉(목사) 등 4명 ○ 남북한 교회대표 공동예배, 통일산학의 구성 및 통일방안문제 등 협의 	
1989. 10. 6	기대원 하와이 내원사 주지, 「한강 연등제」 관련 방북	
199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들의 대화」(핀란드 헬싱키) ○ 북측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 참석 ○ 주체사상, 남한에서의 미국지배문제 등 논의 	
1990. 7. 1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쿄회의」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측 : 권호경(KNCC 총무) 등 각교단 대표 21명 북한측 : 고기준, 김운봉(조선기독교도연맹 부위원장) 등5명 	* 「제일대한기독교총회 도쿄회의」로도 지칭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회년을 향한 동경회의 합의문」도출 및 남북한·해외 기독교인의 공동예배 진행 	
1990. 8. 9 -10	<p>제24차 「북미기독교학자 연례회의」(중국 북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위치 ○ 참석자 : 북측에서만 김운봉(목사), 박승덕(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장), 최옥희(전도사), 이성봉(목사) 등이 참석 	
1990. 8. 12	<p>서울 소망교회와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 평화 통일 공동기도·주일예배 동시진행</p>	
1990. 12. 2 -4	<p>WCC 주최 제3차 글리온회의(스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김성환(KNCC 회장), 권호경, 광선희 목사 등 12명 - 북한측 : 고기준, 박춘근 목사 등 6명 ○ 1995년을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합의서」(회년 5개년 공동사업) 채택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회의 대화 및 만남을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토록 공동노력 	
1991. 1.	<p>제5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들의 대화」(독일 프랑크푸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조선기독교도연맹 부위원장 전금철의 동연맹 대표단 참석 ○ 「통일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1991. 2. 7 -20	제7차 WCC총회(호주 캔버라) 기간중 KNCC권호경 총무 등, 호주연합교회 주최 남북한 기독교자 연합예배 진행	* 북한측은 WCC총회에 옵지비로 참석
1991. 3. 14 -19	<p>남북교회학자 심포지움(미국 L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한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전망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이영희, 박형규, 정현배 등 - 북한측 : 박영수 등 4명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91. 3. 16	미 캘리포니아대학 종교평의회,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전망」을 주제로 남북한 학자·종교인 및 미국학자가 참가한 심포지엄 개최	
1991. 3. 28	고종옥 신부 방북, 부활대축일 미사봉헌(평양 장충성당)	
1991. 5. 28	제25차 「북미기독교자들의 연례회의」(뉴욕) ○ 주제 : 새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독교인의 사명 ○ 참석자 - 우리측 : 송건호, 지명관, 박순경, 이만열, 한완상 등 - 북한측 : 고기준, 김운봉, 김혜숙, 평산도 1명등 4명	
1991. 7	제2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쿄회의」	
1991. 8. 11	서울 광림교회와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 평화 통일기도」동시 진행 ○ 「한국(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기도 주일 공동기도문」으로 기도	* WCC중재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91. 9. 24 -10. 1	박선희 소망교회 담임목사 방북	* 남북교류협 력법 제정이후 국내기주자 중 개인자격으로 서는 최초의 북한 방문
1991. 9. 26	일본 도쿄 국평사(「조불합」대표사절)에서 남북 불교문화교류협의회 발족을 위한 남북 불교교 류대표 실무자회의	
1991. 10. 11 -12	캐나다 NCC 주최 「한반도 평화와 통일세미 나」(토론토) ○ 참석자 - 우리측 : KNCC 대표단 - 북한측 :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 ○ 「통일희년 5개년 공동사업」 실무협의	
1991. 10. 27 -11. 2	제4차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총회(네 팔) ○ 참석자 - 우리측 : 강원용(개신교) 등 6개 종단대표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 : 정신혁(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위원장) 등 2명 ○ 북한측, 천도교중앙총부 임운길 교화관장에게 '92년 천일기념일(4. 4) 참석 및 경주성지 순례 위해 북측 천도교 간부들의 남한방문 희망, 남측의 공식초청 요청 	
<p>1991. 10. 29 - 11. 3</p>	<p>「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회의」(LA 관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한민족불교교류추진 미주불교협의회(「한불연」)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서의현(한국 불교도종단협의회 회장), 전운덕(동 부회장), 박해륜(동 부회장), 송월주(남북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등 21명 - 북한측 : 박태호(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홍화두(동 고문), 심상련(동 서기장), 이동철(동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등 4명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남북 상호교환 방문을 통한 공동 	<p>* 후에 「남북 불교 대표자 회의」로 명칭 변경</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법회 개최, 불교유적지 발굴 공동참여, 공동관심사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제외</p> <p>- 북한측 : 북남간 불교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주둔 미군·핵무기가 철수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을 주장</p>	
<p>1992. 1. 7 -13</p>	<p>권호경 KNCC총무 방북</p> <p>○ KNCC 제41차 총회에 북한기독교인 서울 방문합의(김일성 애방시)</p> <p>○ '95회년 5개년 공동사업 실천협의 및 '92 남북평화통일 기도주일 공동예배문 작성</p>	
<p>1992. 2. 10</p>	<p>KNCC 총회 참가관련 남북 실무접촉(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참석대표</p> <p>- 우리측 : 권호경, 장기천(목사)</p> <p>- 북한측 : 고기준, 김운봉(목사)</p> <p>〈 합 의 사 항 〉</p> <p>○ 북한대표단 구성 : 10명(목사, 신학원교</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수·학생, 기록·통신요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안전보장각서, 방문자명단 교환 : 2.13, 판문점 ○ 통과장소 : 판문점 ○ 체류일정 : 2.15 ~ 19(4박5일, 숙소 : 신라호텔) 	
1992. 2.13	<p>KNCC 총회 참가관련 연락관접촉(판문점 중 감위 회의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의 대표단 명단(5명)과 우리측의 신변 안전보장각서 교환 	<p>* 북한측, 대 남전통문(2.14) 을 통해 불참의 사 표명</p>
1992. 7. 9 -11	<p>제26차 「북미기독교자들의 연례회의」(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민족통일을 위한 신학과 민족주의 재정립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서광선, 이삼열, 박명철, 윤정 옥, 김윤옥 등 - 북한측 : 김근영(전도사), 박승덕 등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92. 8. 15	재미 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단(단장 : 이승만 목사) 방북	* 일명 「도잔 소모임」으로도 지칭
1992. 10. 14	<p>제3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쿄회의」</p> <p>○ 참석자</p> <p>우리측 : 대한예수교 장로회 및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표 등</p> <p>북한측 : 고기준(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황시천(동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이천민(동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김남혁·양수용(신도)</p>	
1993. 4. 11	<p>남북기독교계, 부활절 연합예배에 기도설교문 동시 낭독</p> <p>○ 남 : 여의도 광장</p> <p>북 : 평양 봉수교회</p>	
1993. 6. 11	기독교장로회 창립 53주년 기념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오두산 통일전망대)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기독교도연맹 서기장 고기준의 축하 메세지와 기독교총무 서정대 목사앞 서신 낭독 	
1993. 8. 15	<p>KNCC 평화통일 회년준비위원회, 남북평화통 일 공동기도주일 공동예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문과 기도문은 평양 봉수교회에서 작 성 	
1993. 10. 9	<p>오익제 천도교 교령, 북한 천도교회 중앙지도 위 위원장 유미영과 접촉(북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혁명 100주년기념 남북공동 행사」를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94. 1월말~2월초) 잠정합의 ○ 편리한 시기에 서울~평양간 교환 방문 추 진 	* 천도교 남북 종단대표의 첫 번째 접촉
1994. 3. 9 -10	<p>방진규 천도교 총무원장 등 2명, 북한 천도교 회 중앙위 부위원장 한영수 등과 북경에서 접 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혁명 100주년 남북공동기념 행사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3.21)에 관한 실무문제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행사에 관해 남북공동개최를 재확인하고 빠른 시일안에 제2차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합의 	
<p>1994. 3.12 -14</p>	<p>북한 천도교회 위원장 유미영, 안호상 단군대종교 총전교와 접촉(북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단군대종교 대표들이 단군릉 준공 행사에 참가토록 초청 ○ 남측이 제의한 개천절을 비롯한 전례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문제관련 합의문 채택 	
<p>1994. 5.30 -6. 2</p>	<p>제4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신교에 관한 기독교자도교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통합·합동)·한국 기독교장로회 등 5개교단 대표 10명 및 옵지버 59명 - 북한측 : 강영섭(조선기독교도 연맹 위원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장), 이천민(동 조직부장) 등 5명 - 해외 : 김군식(재일 대한기독교회 목사) 등 40명	
1995. 1.27 -28	제4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교국제협의회」 개최 관련 남북대표 예비모임(북경) ○ 통일회년 성취를 위한 공동노력, 남북합의서 실현을 위한 기독교의 공동대응 등 5개 안건 협의	* 남북 각기 대표 3명 참석
1995. 3.28 -31	제4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교국제협의회」(일본 교토) ○ 참석자 - 우리측 : 오충일(KNCC 회장), 김동완(KNCC 총무) 등 20명 - 북한측 : 강영섭(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황시천(동 국제부장), 김남혁(동 책임지도원) 등 5명 ○ 분과토론 및 전체회의를 거쳐 평화통일공동합의문 및 선언문 발표 - 공동합의문 내용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행사관련 판문점에서 「남북교 화 회년 공동예배」를 진행 • 회년예배와 행사준비, 진행을 위한 모 든 실무적 문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회와 조선기독교도연맹이 공동추진 •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장소에서 양측 의 실무대표들간의 준비회의 개최 <p>선언문(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비핵화선언, 북·미기본합의문 실천방안의 전면적 이행촉구 •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등 미전향장기 수의 북한송환을 남한당국에 촉구 • 남북대표들은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남북양측 피해자들의 조속한 석방·송 환에 공동 노력 • 종군위안부문제 관련 대일 배·보상 요 구 등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995. 4. 4 -11	박경서 WCC아시아개발국장 방북	
1995. 4. 11 -16	<p>안호상 대종교 총전교·김선직 총무원장 밀입 북 및 판문점 경유 귀환</p> <p>* 동 행사관련 대종교측은 황해도 구월산에 서 「어천절」(4.14) 행사 공동개최를 위한 방북을 신청(3.4)했으며, 정부는 미·북간 경수로 공급협정체결문제 추이에 따라 차 후에 검토하겠다고 불허</p>	
1995. 4. 21 -22	<p>남북「합동공동법요식」개최 협의관련 남북종교 인 접촉(북경)</p> <p>○ 참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시현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사 회부장) 등 2명 - 북한측 : 장재철(조선종교인협의회 위원 장) <p>○ 우리측은 남북공동법요식(5.7) 개최 제의 서한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실무회담을 개</p>	<p>* 당초 참석 예 정이었던 박태 호 조선불교도 연맹 위원장은 불참</p> <p>* 남북공동법 요식을 위한 북 측인사접촉신청 (3.28), 통일원 승인(4.12)</p>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최할 것을 재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향후 전문을 통해 발원문을 보내겠다고 약속</p> <p>○ 북한측 장재철은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우리측 종교계가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청</p>	
<p>1995. 4.23 - 5.1</p>	<p>이정산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평불협」)스님 등 2명 방북</p> <p>○ 제2차 「남북불교지도자회의」 및 합동통일기원법회 개최문제 협의</p>	<p>*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호 위원장과 담화</p>
<p>1995. 5.23 -24</p>	<p>남북불교종단 대표 북경회담</p> <p>○ 참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 송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신법타(「평불협」 상임부회장), 실송(조계종 사업부장) - 북한측 : 박태호(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연(동 서기장), 유성철(동 상무위원) <p>○ 협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남북공동법회 및 제2차 남북한평화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p>통일기원 공동법회 개최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불교병원 건립 및 불교유적지 복원 지원 - 송월주 원장등 조계종 관계자 10여명의 방북(7.20 - 8. 5, 판문점 경유)과 북측 불교대표단의 방한(8월중순 이후 예정)문제 	
1995. 6.26 -28	미주한인교회 평화통일희년협의회 제4회 총회 개최(미국 L.A)	

부 록

I. 남북종교교류 관련 주요 제의 및 동향

II. 남북종교교류 관련 주요 문건

I

남북종교교류 관련 주요 제의 및 동향
('92. 1 ~ '95. 8)

《 1992년 》

월 일	한 국	북 한
1.30	-	조국기독교도연맹 서기장 고기준 대 남전통문 ○ 제41차 KNCC 정기총회 ('92.2.17, 서울)참가 관련 2.6에 실무접촉 갖자고 제의
2. 1	권호경 KNCC총무 대북전통문 ○ 제41차 KNCC 정기총회 참가 관련 실무접촉일자 2.10로 수정 제의	-
2. 5	-	조선천도교회 중앙위 위원장 정신 혁, 우리측 천도교 대표 초청 ○ 적십자통로를 통해 공식 요청 * 일본 천도교 신호교구 김동성 감 사 경유
2. 6	-	조선기독교도연맹 서기장 고기준 대 남전통문 ○ KNCC총회 참가관련 실무접촉 일자 수정제의 수락

《 1992년 》

월 일	한 국	북 한
2.10	KNCC총회 참가관련 실무접촉(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참석대표 - 남 측 : 권호경(KNCC 총무), 장기천(목사) - 북 측 : 고기준(조선기독교도연맹 서기장), 김운봉(목사)	
2.13	KNCC총회 참가관련 연락관 접촉(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북측의 대표단 명단(5명)과 남측의 신변안전보장각서 교환	
2.14	-	조선기독교도연맹 서기장 고기준 대 남전통문 ○ KNCC 제41차 총회 참가보류 - 이유 : 우리측의 북측 대표단 촬영기자 동행 및 통신 보장 거부
2.15	-	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강영섭, KNCC 총회참가 무산관련 담화 ○ 우리 대표단의 서울방문을 가로 막아 나선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겨레의 통일염원에 배치되는 반

<< 1992년 >>

월 일	한 국	북 한
9. 4	<p>이흥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위원장 박태호 등 초청</p> <p>○ 동북아시아 평화회의에 박태호를 포함한 홍봉수(조선불교도 중앙위 고문)·심상련(조선불교도 중앙위 서기장)·이동철(평양시 불교회장) 등 초청</p> <p>* 조선불교도협의회 회장 홍봉수, 동회의 불참통보(10.1)</p>	<p>민족적 행위로 이를 규탄함.</p>

《 1993년 》

월 일	한 국	북 한
3. 24	<p>남북연락사무소 손인교소장 대북전통문</p> <p>○ 천도교 중앙총부 오의재교령이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정신헌 위원장에게 보내는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3.26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 2명의 연락관을 내보낼 것임을 통보</p>	<p>북남연락사무소 북측소장 최봉춘 대남전통문</p> <p>○ 우리측 해당기관에서는 지금 형편에서 그 어떤 초청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줄 데 대한 요청이 있었음을 알리는 바임.</p>
8. 9		<p>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서기장 고기준, 남북인간띠잇기대회 및 범민족대회관련 대남전통문</p> <p>○ 오는 8.15 서울에서 북과 남, 해외 동포가 함께 참가하는 범민족대회를 하면서 동시에 남북인간띠잇기대회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p>
8. 10	<p>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호경 총무, 남북인간띠잇기대회 관련 대북전통문</p>	

《 1993년 》

월 일	한 국	복 한
1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에서 제의한 범민족대회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측면에서 검토하였으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함. 	<p>조선천도교회 중앙회 위원장 유미영, 안호상 대종교 총전교에 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군능 발굴소개 및 대종교측과의 교류위해 북경접촉 제의 <p>* 독일경유 '93. 12. 29 도착</p>

<< 1994년 >>

월 일	한 국	북 한
1.24	-	<p>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 위원장 유미영, 오익제 천도교 교령앞 전통문</p> <p>○ 갑오농민전쟁 100돌을 북과 남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3판문점 중감위원회실에 천도교 중앙지도위 부위원장 한영수를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대표를 내보낼 것임.</p>
2. 1	<p>천도교 중앙총부 오익제 교령, 동학혁명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협의 관련 조선천도교회 위원장 유미영앞 전통문</p> <p>○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귀족 인사의 방문이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남북천도교 판문점 실무접촉은 추후 3월초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임.</p>	-
2. 3	-	<p>조선천도교회 위원장 유미영, 동학 100돌 기념행사관련 답화</p>

<< 1994년 >>

월 일	한 국	북 한
2.11	-	<p>○ 북남천도교인들의 판문점접촉을 가로막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죄행을 온민족앞에 준렬히 고발함.</p> <p>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 동학100돌 기념행사 관련 비난 성명</p>
2.24	-	<p>조선천도교 위원장 유미영, 동학 100돌 기념행사 관련 북경접촉 제의</p> <p>* LA교포신문 「신한민보」 통해 FAX접수</p>
3. 2	오익제 천도교 교령, 북측 천도교회 제의 수락	-
3. 9 -10	남북천도교간 동학혁명 100주년 공동기념행사 개최관련 제1차 접촉(북경)	<p>○ 남 측(2명) : 방진규 종무원장, 홍장화 교무원장</p> <p>○ 북 측(4명) : 위원장 유미영 등</p> <p>* 빠른 시일내에 2차 접촉을 갖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동합의문 발표</p>

《 1994년 》

월 일	한 국	북 한
3.12 -14	<p>단군대종교 안호상 총선교·북조선천도교회 위원장 유미영간 접촉(북경)</p> <p>* 공동합의문 채택</p>	
3.17	<p>천도교 중앙총부,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위원장 유미영앞 편지</p> <p>○ 남북관계의 현상황에서 귀측 대표의 서울방문이 어려우므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면서 인내를 갖고 계속 노력할 것이니 양지바람.</p>	
3.21		<p>갑오농민전쟁 100돌 기념보고회 (인민대학습당)</p>
3.30		<p>조선종교인 확대회의(평양)</p> <p>○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 등 참가</p>

<< 1994년 >>

월 일	한 국	북 한
3.30	-	<p>- 감오농민전쟁 100돌기념 남북 공동행사 무산과 관련하여 남한의 종교단체, 교직자, 신도들에 보내는 편지 채택</p> <p>조선기독교도연맹 서기장 고기준 사망</p>
5.30 -6.2	김동완 KNCC총무, 북한 기독교도 연맹 위원장 강영섭에게 「남북인간 띠잇기대회」공동개최 제의(도쿄)	
5.31	제4회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도 도교회의」	
	<p>○ 참석자</p> <p>- 남 측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통합·합동) 대표단 등 59명</p> <p>- 북 측 : 강영섭(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등 5명</p> <p>- 해 외 : 김군식(재일대한기독교회 목사) 등 40명</p>	
7.31	-	<p>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남북인간 띠잇기대회」공동개최 제의 담화</p> <p>○ 8.5 오전 10시 판문점 통일각에</p>

<< 1994년 >>

월 일	한 국	북 한
12.20	-	<p>서 남측대표와 만나 동 대회 관련 실무적 문제를 협의할 것을 재의</p> <p>북한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유미영 등 천도교인들 단군제 진행 (단군릉)</p>

« 1995년 »

월 일	한 국	북 한
1. 7	김수환 추기경, 「카톨릭신문」과의 특별대담에서 방북용의 떠명	-
1.24 -2.12	-	북한 종교인·학자대표단(단장:조선 종교인협의회 회장 장재철)일행 미 국 방문 * 장재철, 클린턴 대통령과 면담 (2.2)
1.27 -28	제4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국제협의회」개최를 위한 실무접 촉(도교) ○ 참석자 - 남 측 : 김동완 KNCC 총무 등 3명 - 북 측 : 조선기독교도연맹 황시천 국제부장 등 3명	
2. 2	-	북한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천도교 회 중앙위, 전원합동회의(평양) ○ 북·남·해외의 모든 천도교인들 과 단군대종교들간의 쌍무·다무 적 접촉과 대화 호소(보고자:유 미영)

<< 1995년 >>

월 일	한 국	북 한
2. 7 - 8	<p>대종교 행사의 남북공동개최를 위한 실무접촉(북경)</p> <p>○ 참석자</p> <p>· 남 측 : 김선적 종무원장</p> <p>· 북 측 : 북한 친도교회 중앙지도위 부위원장 한영수</p> <p>○ 주요 합의내용</p> <p>· 「어천절」(4. 11), 「개천절」(10. 3) 행사 남북 공동개최</p> <p>· 남북통일공동현장 제정</p>	
3. 2 3. 15	<p>송월주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회장, 제2차 남·북·해외 불교지도자 「조국평화통일 기원법회 및 간담회」개최 협의를 위한 예비실무접촉 제의(기자회견)</p> <p>* 2. 20 통일원, 접촉승인</p>	<p>-</p> <p>북한, 열반절 즈음하여 각지 사찰에서 기념법회</p> <p>○ 해방50주년에 즈음한 「통일대축전」에 불교도인들이 적극 참여할</p>

<< 1995년 >>

월 일	한 국	북 한
		것을 호소함.
3.28 - 31	<p>제4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교국제협의회」(교토)</p> <p>○ 참석자</p> <p>- 남 측 : 오충일(KNCC 회장), 김동완(KNCC 총무), 박종화(기독교장로회 총무) 등 20명</p> <p>- 북 측 : 강영섭(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황시천(동 국제부장) 등 5명</p>	
4.11 - 16	<p>대종교 안호상 총전교·김선적 종무원장 밀입북 및 판문점 경유 귀환</p> <p>○ 단군릉 방문, 어천절 기념제 참석 등</p> <p>* 주요 추진경과</p> <p>- 2. 8 : 김선적 종무원장·북한 천도교회 중앙지도위 부위원장 한영수간 북경 접촉</p> <p>- 3.13 : 유미영 명의 안호상 총</p>	-

<< 1995년 >>

월 일	한 국	북 한
4.18	<p>전교등 7인앞 방북 초청장 수신(진분) 3.14 : 안호상 총전교 등 5명 방북 신청 4. 7 : 방북유보 회신 (미·북간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 문제 상황에 따라 검토용의)</p>	<p>북한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 장 유미영, 안호상 총전교 등 밀입 북 관련 정부조치 비난 답화</p>
4.21 -22	<p>남북공동법요식 관련 남북종교인 접촉(북정)</p> <p>○ 참석자</p> <p>남 측 : 시현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장) 등 2명</p> <p>북 측 : 장제철(조선종교인협의회 위원장)</p> <p>* 당초 접촉예정이었던 박태호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은 불참</p>	
4.23 -5.1	<p>「조국평화통일추진인협의회」 대표 방북</p>	-

« 1995년 »

월 일	한 국	북 한
		것을 호소함.
3.28 - 31	<p>제4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교국제협의회」(교토)</p> <p>○ 참석자</p> <p>- 남 측 : 오충일(KNCC 회장), 김동완(KNCC 총무), 박종화(기독교장로회 총무) 등 20명</p> <p>- 북 측 : 강영섭(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황시천(동 국제부장) 등 5명</p>	
4.11 - 16	<p>대종교 안호상 총전교·김선적 종무원장 밀입북 및 판문점 경유 귀환</p> <p>○ 단군릉 방문, 어천절 기념제 참석 등</p> <p>* 주요 추진경과</p> <p>- 2. 8 : 김선적 종무원장·북한 친도교회 중앙지도위 부위원장 한영수간 북경 접촉</p> <p>- 3.13 : 유미영 명의 안호상 총</p>	-

« 1995년 »

월 일	한 국	북 한
4.18	<p>전교등 7인앞 방북 초청장 수산(전문)</p> <p>3.14 : 안호상 총진교 등 5명 방북 신청</p> <p>4. 7 : 방북유보 회신 (미·북간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 문제 상황에 따라 검토용의)</p>	<p>북한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 장 유미영, 안호상 총진교 등 밀입 북 관련 정부조치 비난 담화</p>
4.21 -22	<p>남북공동법요식 관련 남북종교인 접촉(북경)</p> <p>○ 참석자</p> <p>남 측 : 시현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장) 등 2명</p> <p>북 측 : 장세철(조선종교인협의회 위원장)</p> <p>* 당초 접촉예정이었던 박태호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은 불참</p>	
4.23 -5.1	<p>「조국평화통일추진인협의회」 대표 방북</p>	-

《 1995년 》

월 일	한 국	부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자 : 이정산 스님(LA수도사 주지), 장지현 정사(「평불협」 미주본부 회장) ○ 주요 합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남북공동기원법회」의 판문점 개최 - 「남·북·해외 불교지도자 통일 기원법회」LA(8월, 관음사) 개최 	
4. 24	<p>김소영 KNCC 통일위원장, 「남북교회 회년 공동예배」 남북 합의내용 발표(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오후,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 개최 	-
5. 3	<p>「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북한측에 제2차 실무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3 「한·중·일 불교도대회」가 열리는 북경에서 실무접촉을 갖 	-

<< 1995년 >>

월 일	한 국	북 한
5. 9	<p>자고 조선불교도연맹에 제의</p>	<p>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방북 안호상 일행의 구속관련 비난담화</p> <p>○ 안호상총전교일행에 대한 김○○ 일당의 탄압행위를 반종교적인 또하나의 엄중한 죄악으로 인정하고 이를 준열히 규탄함.</p>
5.10	<p>김수환추기경, 방북의사 표명</p> <p>○ 북한이 초청장을 보낼 경우 미사집전 등 신자들과의 접촉가능성을 통일원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임.</p> <p>* 독일 현지에서의 기자인터뷰</p>	-
5.13		<p>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방북 안호상일행 구속관련 성명</p> <p>○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안호상일행에 대한 탄압행위를 계속한다면 온겨레와 세계양심의 큰 항의</p>

《 1995년 》

월 일	한 국	북 한
		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임.
5.23 - 24	<p>남북불교종단대표 북경회담</p> <p>○ 참석자</p> <p>- 남 측 : 송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신법타(「평불협」상임부회장) 설송(조계종 사업부장)</p> <p>- 북 측 : 박태호(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심상연(동 서기장) 유성철(동 상무위원)</p> <p>○ 협의내용</p> <p>- 8·15 남북공동법회 및 제2차 남북한평화통일기원공동법회 개최문제</p> <p>- 북한의 불교명원 건립 및 불교유적지 복원지원</p> <p>- 송월주 원장 등 조계종관계자 10여명의 방북(7.20-8.5, 판문점 경유) 과 북측 불교대표단의 방한(8월중순이후 예정) 문제</p>	
5.24	-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남한당국의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비난 성명

<< 1995년 >>

월 일	한 국	북 한
5.25	<p>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방북허용 검토 언급(기자회견)</p> <p>○ 월주스님의 방북은 순수한 종교 교류차원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임.</p>	<p>○ 궁지에 몰려 앞날이 없는 자들의 또하나의 용납못할 반통일적 파쇼폭거임.</p>
5.26	<p>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남북교류 지속추진 방침 언급 (범종단 남북교류추진협의회 기념강연)</p> <p>○ 남북간 화해·협력단계 진입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종교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통일정책을 펴나갈 것임.</p>	-
5.28	-	<p>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등, 판문점공동집회 불허관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에 편지 발송</p>

《 1995년 》

월 일	한 국	북 한
		<p>○ 민족통일대축전 및 8.15 공동예배 성사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주장</p>
5. 30	-	<p>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등 판문점 공동집회 불허 관련 남한과 해외단체들에 편지발송</p>
5. 31	-	<p>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방북 안호상 일행 징역형 구형 비난 성명</p> <p>○ 이는 극악무도한 애국애족의 넋을 짓밟는 야만행위로, 반종교적 탄압행위를 준렬히 규탄함.</p> <p>조선천주교인협회, 남한당국이 반민족적·반통일적 책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 성명</p>
6. 1	-	<p>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 남측이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 성명</p>

<< 1995년 >>

월 일	한 국	북 한
6.26 - 28	제4차 미주한인교회 평화통일 회년 협의회 총회	-
6.28 -7.31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 불법방북	
7.15		조선천도교회 중앙위 등, 통일대축 전성사 투쟁촉구 남한단체들에 편지 * 대상 : 천도교 중앙총부 대종교 총본사
7.21	통일원 대변인, 8.15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의 관분점 기념행사 불허 발표 ○ 정부는 5.16 통일관계장관회의 에서 결정한 지침에 맞지 않으므 로 접촉승인을 불허했으며, 정부 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백시밀리 회담을 한 사실에 대해 엄중 경 고조치했음.	
7.29	-	조선종교협의회, 박용길 귀환 관련 「연합성명」

<< 1995년 >>

월 일	한 국	부 한
8.14	<p>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김몽은), 범종교평화통일기원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 - 분단 50주년 종교인 평화 통일선언문 채택 - 10개항의 실천강령 포함 ○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유교·천도교 등 6개 교단대표 500여명 참석 	-

III

남북종교교류 관련 주요 문건

1. 제1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간의 대화」
공동성명(비엔나 선언 : '81.11.5, 오스트리아 비엔)

1981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오지리 원에서 북과 해외 동포 기독교자 대표 45명과 방청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을 위한 첫 역사적인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모임은 1945년 이래 36년간 이라는 긴 분단역사에 있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처음있는 일이다. 이 모임에서는 이번 대회가 민족 자주적 힘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하나의 새로운 전력으로 된다는 것이 일치하게 강조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또한 서로 오해하고 불신했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교제하고 모든 차이를 떠나 동족의 정으로 서로 만나 대화한다면 능히 화해하고 단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얻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화가 성립된 것은 분열을 영

구화 하려는 내외세력에 대한 타격이며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커다란 승리였다. 한마디로 마음의 장벽은 무너지고 대화의 문은 열렸다. 미국에 사는 강위조 목사는 “조국분단 역사에 있어서의 기독교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일찌기 외국군대의 침략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오늘 미국의 이기적이고 반공적인 대 아시아정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전쟁을 미워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기독교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평화교관과 분열역사에 협력하였다는 것은 큰 수치요 잘못이었다. 분단은 내적요인에서 일어날 수 없으며 외국세력이 이남을 지배하고 간섭하고 있는 이상 통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헤쳐나감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바로 이것이 모든 동포 기독교자의 책임이며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북에서 오신 고기준 목사는 귀중한 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북 교회의 실패를 보고하면서 이북의 사회주

의와 기독교가 많은 공통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은 인간에게 봉사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점에서 기독교와 다른 점이 없으며 근로대중을 위한 이북의 정책과 제도속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잘 구현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른바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립은 이남당국의 극단적인 반공선전과 사이버 사회주의와 사이버 기독교간의 상극에서 온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는 이북 기독교인들이 구세주나 천사처럼 여기던 미군에게 오히려 전쟁기간 폭탄세례를 받고 미군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경험하면서 그들에 대한 실망이 기독교에 대한 실망으로 변할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통일과 외세”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조선기독교도연맹 부위원장 임국헌 장로는 조국분단의 원인이 미군의 이남강점에 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논증하면서 이남에 대한 미군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조국통일을 위한 근본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기독교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서독의 이영빈 목사는 기독교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과제로서 화해, 외세로부터의 해방, 가난한 자와의 연대, 북의 사회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논술하였다.

“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민주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전금철 부위원장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합리성과 현실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증하고 모든 애국동포들이 민족의 단결로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제기된 연설들에 대해 광범한 질문과 토의를 진행한 후 모임 참가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외세의 희생물이 되어 영구 분열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합의하였다.

1. 우리나라는 자주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민족의 자결권은 이

남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민족의 자주성 없이는 민족의 존엄도 민주주의 자유도 평등도 존재할 수 없다. 이남에서 미군으로부터 통수권을 찾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이남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며 나라의 분열을 합법화하기 위한 “유엔 동시가입안”과 “교차승인”은 강경히 거부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는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군비를 축소하며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하며 한반도는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통일은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의 단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민족적 양심에서 애국하는 모든 동포형제들이 단결해야 한다. 민족보다 자기의 권익을 추구하며 민족내부의 불화와 반목

을 고취하는 이남의 전두환 군사독제는 광주대학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남에서 인권억압을 중지하고 민주와 민족통일을
위해 싸우는 애국인사들을 위시한 모든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
하며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가능케 해야 한다. 우리
는 이남에서 복숨을 걸고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기독교
들과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굳은 연대성을 표시한다.

4.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독자성을 살려서 자치적인 연
합체를 구성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는 자주, 민주, 평화, 중
립적인 연방국가를 창설하는 것이 통일을 실현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
5. 우리는 이번 모임을 통하여 씨알의 역할을 다하여 통일성업에
투신할것을 결심하고 대화를 더 광범하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2.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들의 대화」 공동성명(헬싱키선언 : '82.12.5, 핀란드 헬싱키)

해내외 동포들과 기독교 신자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1982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 신자간의 대화가 있었다.

지난해 오지리 원에서 첫 대화가 있던 후 두번째로 열린 이번 대화에는 북과 해외의 각계 동포들과 기독교 신자 대표 1백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새로운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내외에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일층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문제들에 대하여 4건의 기초보고가 발표되었다.

기초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그 실천적 과제」에서 북의 보고자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위업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늘 미국이 남한에서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면서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논증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미군을 남한으로부터 철수시키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반미자주화 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하루 빨리 자주, 민주, 평화, 중립적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조보고 「남한사회의 민주화와 김대중선생의 구출문제」에서 해외동포 보고자는 「전두환정권」의 인권탄압실태와 김대중 구출운동의 현황을 소개한 다음 외세의 배제만이 남한 사회의 민주화는 물론 김대중선생의 인권회복을 가능케 하는 전제임을 지적하였으며 김대중구출 운동을 남한사회의 민주화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보다 폭넓게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하루빨리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남한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조국을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제기하였다.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이라

는 주제를 발표한 북의 보고자는 주체사상은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케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서 민중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밝혀준다고 설명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우리민족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에서의 기독교 신자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해외동포 보고자는 조국의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의 정책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친미반공의 반민족적인 길을 걸어왔음을 지적하고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과 강원대학생들의 성조기 소각 사건이 친미반공의 우상을 깨뜨리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기독교와 주체사상과의 공통점에 기초하여 서로 단합을 이룩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하는 것이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자 특히 해외동포 기독교자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에서는 또한 발표된 기초보고에 대한 광범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는 다음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일어나가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과 실천방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① 미국정부는 우리 민족공통의 통일강령인 7·4남북공동 성명서에 천명된 자주, 민족적 대단결, 평화 통일의 3대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모든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할 데 대한 유엔헌장과 유엔총회 제30차 회의 결의에 따라 군대를 이남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② 미국은 조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고 「두개조국」정책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이남 국민들의 배척을 받고 있는 전두환 파쇼「정권」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지원을 그만 두어

야 한다.

- ③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은 이남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자주화 운동을 과감히 벌리며 이남 인민들의 반미운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이남에서 군사파쇼독재를 철폐하고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 ① 이남에서 파쇼와 분열, 전쟁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전두환 일파를 제거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민주정권을 세워야 한다.
- ② 이남에서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김대중 선생과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들을 비롯한 투옥된 모든 정치범들이 무조건 지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 ③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은 반파쇼민주화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이남국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백방으로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3. 나라의 영구 분열체통을 배격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나라의 영구 분열을 합법화하려는 내외의 분열주의자들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통일의 너울을 씌운 영구 분열방안으로 인정하고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②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평화적인 민주연방 공화국을 창립할 데 대한 방안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써 그것은 하루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4.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이남에 있는 미군사 기지를 철폐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화를 들쭉날쭉 해무기와 생물 화학무기 등 모든 무기와 군사장비를 철거시키며 한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②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빈번히 진행되고 있는 미한 미일전쟁 연습 소동은 중지되어야 한다.

③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전협정체결의 당사자들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의 대화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5. 통일과 단결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들 사이의 공동행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① 지난 두 차례의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 신자간의 대화가 호상이해와 단결을 도모하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위업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금후 민족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1983년에는 북과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을 망라한 북과 해외동포간의 대화를 쌍방에 편리한 지역에서 진행한다.

② 남한 국민들의 민주항쟁을 성원하여 매해 광주봉기의 날인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를 「자주, 민주화 운동순간」으로 설정하고 해내외에서 대중적인 공동행동을 광범히 전개한다.

3.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 (KNCC 통일선언 : '88.2.29)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7회 총회에서 채택

우리는 먼저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한반도의 역사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되어 일할 수 있도록 선교의 결단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창조주(창1:1)이심을 믿으며, 모든 인간이 당신의 자녀로 초대받았음(롬8:14-17, 갈 3:26, 4:7)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 (엡2:13-19)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눅4:18, 요14:27).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행10:36-40).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마5:9).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요14:18-21, 16:13-14, 17:11)는 것을 믿는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골3:15)을 믿으며, 같은 피를 나눈 한 겨레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마5:23-24)임을 믿는다.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 공동체 앞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간의 정부책임자들과 우리 민족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전통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된지 1백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가 저지른 민족사에 대한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국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참 소망이었던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려고 애써 왔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성경말씀이 명하는 대로(눅4:18-19)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억눌린 백성에게 자유와 자주의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일제에게 노예가 된 한국민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선교하여 왔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의미를 노예처럼 굽히고 복종하면

화복하게 하셨으니(엡2:15-16) 이것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복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따라서 우리 총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표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선언”을 통하여 (1) 자주 (2) 평화 (3) 대동단결 (4) 인권보장 (5) 민중참여의 오대 원칙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이 오대 원칙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이며 무력이 아니라 평화의 통일이며 남·북의 그 어느 쪽도 배제하지 않고, 대동단결에 의한 통일이 인권탄압이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는 통일이며 어떤 권력층이 아니라 전 민중의 참여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오대 원칙에 입각하여 우선 이산가족의 남북 자유왕래, 스포츠·문화·경제교류,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군대와 군비축소 그리고 남북 전역에 걸쳐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었을때 모든 외국군 기지와 핵무기가 철

을 유린하고 경제성장 논리로써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했으며 한국 교회는 이에 대하여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신앙으로 저항하여 왔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의 인권 및 민주화운동은 바로 이러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교운동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 민족분단의 현실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현대 세계의 정치구조와 이념체제가 낳은 죄의 열매이다. 세계 초강대국들의 군사적, 이념적 대결과 상호분쟁 속에서 한국민족은 속죄양의 고난을 당하여 왔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한국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남북분단이라는 또 다른 굴레가 민족을 속박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군대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명목하에서 설정된 남북분단선은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에 의하여 고착화되었고, 남북한에는 각각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군사적,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어 왔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은 동존상잔의 비극을 낳았으며, 국제적 갈등은 극대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 지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이 투하되어 한반도는 초토화되었다. 이 전쟁에서 남한군 22만 명, 북한군 60여만 명, 중공군 1백만 명, 미군 14만 명, 유엔군 1만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전쟁 중에 병으로 사망한 숫자를 포함하면 2백5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희생되었다. 남한 50만과 북한 3백만의 민간인 사망자를 합치면 6백만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진 것이다(브리태니카 백과사전 1970년도판 통계임). 그리고 3백만 명의 피난민과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6.25를 전후하여 북한 공산정권과 대립했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수난과 죽음을 겪어야 했으며, 수십만의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향과 교회를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와 피난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한편 공산주의 동조자들은 이념 전쟁의 제물이 되었고 '부역자'라

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배장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53년 휴전 이후 일시적일 것으로 여겨졌던 ‘휴전선’이 영구불변의 ‘분단선’처럼 되면서 남북분단의 벽은 높아져 갔고 남북한의 두 체제는 단절과 대결 속에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관계를 지속시켜 왔다.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가속화되었고, 북한병력 84만과 남한병력 60만을 합하여 근 150만 군대가 무장대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겨냥되고 있는 핵무기는 이 땅을 없애 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가공할 파괴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민족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양 체제에서 모두 안보와 이데올로기의 이름아래 인권은 유린되어 왔으며,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억압되어 왔다. 그리고 서신 왕래도, 방문도, 통신도 두절된 양쪽은 한 땅덩어리 위에서 가장 멀고 이질적인 나라가 되었다. 남북한의 교육과 선전은 상호 비방 일색이며, 상대방을 상호 체제경쟁을 통하여 약화시키고 없애야 할 철천지 원수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국민들은 동족의 생활과 문화에 대하여 서로 무지할 뿐 아니라 서로 알아서는 안되는 관계로까지 길들여져 왔다. 양 체제는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가장 무서운 원수로 인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의 길은 1972년 이른바 7·4공동성명이 계기가 되어 트이기 시작하여 대화와 협력과 교류에 희망을 갖게 하였다. 1985년에는 남북적십자 회담이 재개되고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이루어졌으나 그 수는 극히 한정되었으며 대화와 협상은 끝없이 공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그리스도인들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 공산정권에 대하여 깊고 오랜 불신과 뼈에 사무치는 적개심을 그대로 지닌 채 반공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해 왔다.

○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면서 분단체제 안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깊고 오랜 증오와 적개심을 품어 왔던 일이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고백한다.

❶ 한국민족의 분단은 세계 초강대국들의 동서 냉전체제의 대립이 빚은 구조적 최악의 결과이며 남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악의 원인이 되어 왔다.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마22:37-40)을 어기는 죄를 범해 왔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그 최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하여 왔다. 분단은 전쟁을 낳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방지의 명목으로 최강 최신의 무기로 재무장하고 병력과 군비를 경화하는 것을 찬동

하는 죄(시33:16-20, 44:4-7)를 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는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외세에 의존하게 되었고, 동서 냉전체제에 편입되고 예속되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주독립정신을 상실하는 반민족적 죄악(롬9:3)을 범하여 온 죄책을 고백한다.

- ② 우리는 한국교회가 민족분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침묵하였으며 면면히 이어져 온 자주적 민족통일운동의 흐름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정당화하기까지 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체제가 강요하는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상화하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반역죄(출 20:3-5)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정권 뜻에 따른 죄(행 4:19)이다.

특히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상화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적대시한 나머지 북한 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동포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죄(요 13:14-15, 4:20-21)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계명을 어긴 죄이며 분단에 의하여 고통받았고 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죄이며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한 죄(요 13:17)이다.

○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화해의 복음(엡 2:14-17)을 실천해야 하며, 동족의 고통스러운 삶에 동참해야 한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으므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바로 신앙의 문제임을 인식한다. 통일은 곧 민족의 삶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분단을 극복함으로써 갈등과 대결에서 화해와 공

존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의 평화로운 민족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4년 이래 수차례 걸친 협의 모임을 통하여 민족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2년 남북간에 최초로 합의된 7·4남북공동성명에 나타난 1)자주, 2)평화, 3)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정신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이 통일을 위한 모든 대화 및 협상, 실천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① 통일은 민족이나 국가의 공동선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나 민족도 인간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이념과 체제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배려와 조치의 시행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인도주의적 조치의 시행이 보류되어서는 안된다.

② 통일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모든 논의 과정에는 민족구성원 전체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별히 분단체제 하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 구성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소외되어온 민중의 참여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

이상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당국이 성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①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40여년간 분단체제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희생되어온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하며, 어느 곳이든지 당사자들이 살기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옮겨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년중 일정한 기간 동안(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 자유롭게 친척과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 민족분단의 고정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일시적 과오나 가족이나 친척이 특수한 전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회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은 즉각 타파되어야 한다.

②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 정부당국이 남북한 양쪽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통일논의를 독점하여서는 안되며, 남북한 국민이 통일논의와 통일정책 수립 과정에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일문제의 연구 및 논의를 위한 민간기구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나) 남북한 양측은 체제나 이념의 반대자들이 자기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하여야 하며,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인권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민족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남북한 국민이 각각의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한 국민 스스로가 같은 운명체로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상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확인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굳게 믿고 신뢰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남북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상호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신과 적대감을 낳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함과 동시에 상호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민족동일성을 시급히 회복시켜야 한다.

신뢰조성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분단극복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남북한 정부 당국자간의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거나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가) 남북한은 상호 적대감과 공격적 성향을 없애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 배타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에 대한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난을 상호 건설적인 비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는 서로의 실상을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류, 방문, 통신이 개방되어야 한다.

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의 언어, 역사, 지리, 생물, 자연자원 등에 관한 학문분야에서 교류와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분야에서도 서로 교류하여야 한다.

라)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민족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상호이해 증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한 최대한 개방되어야 한다.

④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하여

가)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하루 속히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 당국과 미국, 중국 등 참전국들이 휴전협정을 평

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불가침조약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협상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주한 육해군 사령부도 해체되어야 한다.

다) 과도한 군사력 경쟁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역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간의 협상에 따라 군사력을 감축해야 하며 군비를 줄여서 평화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라) 핵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

[5] 민족 자주성의 실현을 위하여

가) 남북한간의 협상이나 회담, 국제적인 협약에 있어서는 주변 강대국이나 외세의 간섭에 의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나) 남북한 양측은 민족의 삶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체결된 모든 외교적 협상이나 조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국제연합이나 동맹국들과의 관계수립이나 협약에 있어서도 남북한 상호간의 합의와 공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한다.

○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 (골 1:20)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간구원과 해방을 위한 선교사역이 우리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 다른 사회체제 속

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고백의 형태와 교회의 모습
이 비록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에 매어 있으므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
들임(고전 12:12-26)을 믿는다.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최근 몇년간, 놀랍게도 우리와 떨어져
있던 북한 사회내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이같은 확신을 더욱 굳게하여 주었다.

우리는 다시금 이 한반도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해방
사역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끈기있게 신앙을 지켜
나가고 있는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와같은 고백에 입각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와 화해
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민족분단의 고통에 동참
하고 통일로써 이를 극복해야한다는 역사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
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년선포운동

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한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눅 4:18-19)

‘회년’은 안식년이 일곱번 되풀이되는 49년이 끝나고 50번째 되는 해이다(레 25:8-10). 회년은 ‘해방의 해’이다. 회년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계약을

지키는 행위이다. 회년은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내외 정치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극복하여 노예된 자를 해방하고, 빛진 자의 빛을 탕감하며, 팔린 땅을 본래의 경작자에게 되돌려 주고, 빼앗긴 집을 본래 살던 자에게 돌려주어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살롬을 이루어 통일된 평화의 계약공동체를 회복하는 해(레 25:11-55)이다.

한국교회가 해방 50년째인 1995년을 회년으로 선포하는 것은 50년 역사를, 아니 전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현존을 믿으면서 평화로운 계약공동체의 회복을 선포하고 또 오늘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회년을 향한 대행진은 회년 대망 속에서, 민족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선교에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② 한국교회는 '희년을 향한 대행진'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회갱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가) 평화와 통일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와 교권주의를 극복하고 교회일치를 위한 선교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 희년을 선포하는 한국교회는 '참여'를 제약해온 교회의 내적 구조를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청년을 포함하는 평신도의 선교사역에의 참여는 과감하게 개방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언자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③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평화와 화해의 결단을 하는 신앙공동체로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폭넓게 시행해 나갈 것이다.

가) 한국교회는 평화에 관한 성서연구와 신학연구 등 평화교육을 널리 보급하고 각종 신학연구기관과 기독교교육기관은 이를 위하여 정보교환과 연구를 촉진시킨다.

나) 한국교회는 민족통일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분단구조 및 분단역사에 대한 이해와 분단문제에 관한 신학적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민족통일의 역사적, 사회적, 신학적 당위성을 인식하게 하는 통일교육을 촉진시킨다.

다) 한국교회는 기독교신앙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결단을 통하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히고 이념적인 대화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시킨다.

④ 한국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선포하는 회년축제와 예전(禮典)을 통하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참다운 화해와 일치를 실천해 나간다.

가) 한국교회는 평화와 통일의 회년을 기념하는 '평화와 통일 기

도주일'을 설정하고 예배의식을 개발한다. 이 예배의식에는 통일을 위한 기도, 분단의 죄책고백, 소명과 결단, 분단의 희생자들과 분단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 민족화합을 위한 신앙고백, 말씀선포(회년선포), 찬송과 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성례전 등이 포함된다.

나) 남북한 교회의 상호왕래가 실현될 때까지 세계교회와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의 회년을 남북한 교회가 공동으로 선포하도록 하고, '평화와 통일 기도주일'을 공동으로 지키는 일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문'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일을 추진한다.

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왕래의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남북으로 헤어진 친척과 교우, 친구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5) 한국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전

개해 나간다.

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년'의 선포는 신앙고백의 행위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개교회 차원에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신앙고백적 행동과 실천을 가맹교단 뿐만 아니라 비가맹교단과 천주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교적 소명은 한반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과제이므로 한국교회는 북한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남북한 교회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동북아시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

화에 있어서도 하나의 관건이므로 한국교회는 한반도 주변의 미국, 소련, 일본, 중국 등 4개국내의 기독교 공동체를 비롯한 세계교회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연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 한국교회는 타종교 및 타운동들과의 대화를 확장, 심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의식을 촉진시켜 공동연구와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민족통일에 대한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선언문('88.7.5)

우리는 오랫동안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연구와 기도를 계속해 왔다. 금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지난 2월 29일 제37회 총회에서 채택 발표한 “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 선언”을 듣고, 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우리 총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는 불행한 역사 속에 일제에 의해 강제 연행된 한민족의 후손들이며, 참된 해방이 없는 일제의 연장으로 민족의 온갖 차별과 탄압을 받아왔다.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 왔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에 입각하여 분열된 동포 즉 민단·조총련·귀화동포의 화해를 도모하며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평화가 성취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이 우리 총회의 선교적 과제임을 선언한다.

이 길은 결코 고된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 민족의 살 길이기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가야할 길이다. 이 험한 고난을 통과할 때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1. 분단의 현실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은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미·소 양 강대국의 이해 관계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 분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한맺힌 비극과 불행을 초래했으며 6.25 전쟁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들었고 약 600만의 동족을 희생시켰으며 일천만 이산가족을 내었다. 오늘 남북을 겨냥하여 배치된 미·소 양국의 핵무기는 이 민족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다.

조국의 분단은 해외동포들에게까지 갈등과 증오, 분열과 적대관계를 가져왔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는 민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지지하는 조총련과의 반목과 대립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현실에 실망한 동포들이 일본 정부의 동화와 추방 정책으로 인하여 많이 일본에 귀화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귀화하고 있어 민족의 분열은 심각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조국의 분단으로 인한 대립을 역이용하여 우리 동포의 분열을 조장하여 동화정책과 추방정책으로 민족 차별에 항거할 수 없도록 힘을 분산시켜 왔다. 그러므로 귀화동포들은 일본 동화정책의 희생자들이다. 바라는 앞으로 귀화동포들이 한민족의 후손임을 자부하고 민족통일과 평화를 위한 운동에 참여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 총회는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민족 차별에 항거하여 지문 압날거부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한편, 조국에 가서 공부하던 재일 동포 학생가운데 민족통일을 위하여 행한 것이 위법이되어 구속된 학생들도 민족 분단의 희생자라 할 것이다.

우리 총회는 이러한 민족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믿는 것이다.

2. 죄의 고백

우리 총회는 조국의 분단으로 야기된 비극에 대하여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우리 민족의 분열은 일본제국주의의 패전으로 인한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인 책임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통일된 민족의 주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큰것을 깊이 사죄하고 회개한다.

우리 재일동포들은 남북정부의 분단정책에 비판없이 편승, 혹은 맹종함으로써 38선없는 일본 땅에서까지 분열된 민족이 된 것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 총회가 “하나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본부를 실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

우리 총회는 화해와 사랑의 복음을 선교하면서 민족의 아픔과 조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하여 침묵을 지켜온데 대하여 회개한다. 아직도 현존하는 이산가족의 한많은 애원과 눈물, 그리고 사할린 이산 가족의 뼈아픈 고통소리며 일본의 억압 정책으로 말미암아 귀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귀화 동포들의 애로와 고통 또한 남과 북에
이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하여 정치 사상범으로 옥고를 치
르고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과 호소에 응답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무권리 상태에서 억압받고 있는 동포들의 눈물겨운 외침
에 대해 응답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이제 우리는 남과 북, 그 어디에 살며 그 어디에 속해 있던지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다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
므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께기할 때가 왔다고 본다.

3.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
제이며,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 총회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에 입각하여 이 운동에 참여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
목하게 하시고(고후 5:18) 사람과 사람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복하게 하셨으니(엡2:15-16) 이것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복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따라서 우리 총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표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선언”을 통하여 (1) 자주 (2) 평화 (3) 대동단결 (4) 인권보장 (5) 민중참여의 오대 원칙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이 오대 원칙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이며 무력이 아니라 평화의 통일이며 남·북의 그 어느 쪽도 배제하지 않고, 대동단결에 의한 통일이 인권탄압이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는 통일이며 어떤 권력층이 아니라 전 민중의 참여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오대 원칙에 입각하여 우선 이산가족의 남북 자유왕래, 스포츠·문화·경제교류,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군대와 군비축소 그리고 남북 전역에 걸쳐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었을때 모든 외국군 기지와 핵무기가 철

거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 사회의 차별을 철폐하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모든 계층의 대립과 분열과 증오를 해소하고 정의와 사랑과 화해로 총단결의 살림(평화)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성령도 이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한다.

4. 회년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는 1995년을 회년으로 선포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레위기 25:8-10) 50년마다 지키는 축제의 해인 것이다. 이 해는 자유와 평등에 의해 토지 균등분배와 원상복귀의 해요,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과 노예 사이에 해방의 해이다.

우리 민족의 회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우리 민족의 진정한 회년은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어야 하겠다. 이

해에 양단되었던 남과 북의 국토가 하나가 되고, 고향을 떠났던 이산 가족들이 고향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만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해는 참으로 민족의 축제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희년에는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동포들과 온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부당한 차별과 학대, 증오와 불신,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원한이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의 품에서 해소되고, 온전한 화해와 진정한 살림(평화)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희년의 꿈이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5. 우리 총회의 실천을 위한 다짐

- 1) 우리 총회는 매년 8.15 전주일을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한 주일」로 지킨다.
- 2) 우리 총회는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하여 모든 협력을 다한다.
- 3) 우리 총회는 민족 기념행사를 민단·조총련·귀화동포와 공

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4) 우리 총회는 재일동포가 남북 땅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남·북 정부에 요청한다.
- 5) 우리 총회는 조선기독교도연맹과의 교류를 가지면서 적당한 시기에 선교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
- 6) 우리 총회는 이념을 초월하여 인도적인 의미에서 남북 지역에서 인권유린과 억압이 없는 자유와 평화가 실현되기를 기도한다.
- 7) 우리 총회는 선교 90주년을 향해서 평화와 통일을 애용으로 한 교육과 선교를 구체화해 나간다.
- 8) 우리 총회는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본국 교회와 일본 교단과 세계교회와의 유대와 대화를 계속해 간다.
- 9) 우리 총회는 일본 사회의 차별 문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한다.

- 10) 우리 총회는 세계 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반도의 모든 핵무기를 비롯하여 전세계 핵무기 전폐운동에 동참해 간다.

5.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리온선언('88.11.25)

I. 우리는 1988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의 글리온(Glion)에 모여서 한(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구축하고 한(조선)민족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는 과업에 대한 세계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 협의회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대표 7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 11명이 참여하였으며 세계 여러나라 교회의 대표(10개국)들이 나란히 예배와 교제, 성서 연구와 성례전에 동참하고 발제와 토론을 통한 의견교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에 이은 제2차 회의였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교회협의회 노력에 감사하며 1984년 이른바 일본의 Tozanso회의의 정신과 합의사항들을 지지한다. 또 1986년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채택한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와 1988년 2월 한

국기독교교회협의회(국기교회협)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과 동년 4월 인천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 세계대회”의 메시지 등에 나타난 정신과 합의사항 등을 지지한다.

Ⅱ.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상황에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힘으로 평화를 메도 하려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거부하셨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 하심은 반목과 증오로 갈라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헐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교회)로 부르고 계신 것을 믿는다.

이러한 우리들의 고백에 기초하여 과거 40년동안 한(조선)반도에서 벌어진 반평화적이고 분열적인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류 역사앞에서 죄를 범하여 왔음을 고백

하여야 하고, 한(조선)민족은 세계 열강의 세력정치때문에 스스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분단을 강요당해 왔다. 과거 40여 년 동안 그 분단으로 인한 동족상잔과 그로 말미암은 불신과 반목의 댓가를 홀로 치루어 왔다.

우리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한(조선)민족의 고난이 스스로의 허물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다. 우리는 한(조선)반도에서의 군비 경쟁이 세계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우리는 또 이념적 집단화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신무장이라고 인식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왜곡된 인식을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조선)민족이 통일된 국가에서 단일공동체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또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한(조선)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Ⅲ. 한(조선)민족의 평화와 통일이 이룩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원칙들을 재확인 하고 몇가지 실천적 과제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첫째,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남·북의 교회는 1995년을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하고 매년 8·15 직전 주일을 공동기도일로 지킨다. 또 이 날을 위해서 공동기도문을 채택한다. 나아가 세계의 모든 회원 교회들이 이 날을 지켜줄 것을 권면하도록 세계교회협의회에 요청한다.

둘째, 우리는 1972년 북과 남의 양 정부가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조선)민족의 통일노력이, 현재의 양체제의 존속이 보장되는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셋째, 우리는 한(조선)반도의 통일의 주체는 남북의 민중 당사자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오늘의 분단상황에 관여하였거나 앞

으로의 통일과정에 방해가 되는 모든 외세는 배제되어야 한다.

또 통일은 남북한 민족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함이 기본원칙임을 확인한다.

네째, 한(조선) 반도를 포함한 동북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조선) 반도의 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분단을 정당화하거나 기정 사실화시키려는 어떤 형태의 위장평화도 배격되어야 한다.

또 분단의 고정화를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 대책이나 제안도 배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한(조선)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양쪽으로 갈라진 민족 당사자 간에 신뢰성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누적되어 온 적대감과 증오심을 극복하고 용서와 화해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남북한 교회들이 각별히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세계교회들도 국제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등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여섯째,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병력과 무기와 군사시설들이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남북당사자간에 불가침선언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의 신뢰성이 회복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나아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와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그리고 한(조선)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조선)반도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조선)민족의 분단으로 빚어진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와 남북간의 각종 교류는 인도주의적 요청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만남과 교류는 현재의 군사적 정치적 대결

상태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채로 이룩될 수 없으며 오히려 통일 의지의 약화와 좌절을 가져올 위험마저 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과제의 수행과 북남간의 교류는 통일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세계교회협의회 정책성명('89.7.27)

1. 세계교회협의회는 제6차 총회 당시 “평화와 정의에 관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회는 오늘날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고, 또 불의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을 지켜온 것에 대해 회개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정의로운 평화, 통전성, 일치에 대한 성서적 비전은 모든 하느님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대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일치에 대한 열망은 한반도의 경우에 가장 강렬하게 그리고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집중되어 나타난다. 한민족은 외국군대에 의해서 분단되었으며 지금도 분단되어 있고, 이 분단을 영속화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억압적인 통제체제에 내어 맡겨져 있다.

한반도에서는 정의와는 상반되는 개념들이 창조되어 체제화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대결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소위 ‘평화’는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군사력이 집중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유지되고 있다. 정의에 대한 독특한 개념들이 한민족이 자신들이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유지되고 있다. 한반도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전쟁상태에 있으며 수백 만의 가족들이 헤어져 살고 있는 한에 있어서 정의가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에큐메니칼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살림, 즉 의로움과 행복이 지배하는 진정한 평화를 건설하도록 촉구한다. 에베소서 2:14~16의 성서귀절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민족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 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항상 공평하게 다뤄오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과거의 실수는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양심에 비추어 재평가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노력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심화시켜 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에 관한 도잔소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교회는 희망을 공급하고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일치를 위하여

증거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단이라는 비극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화와 참여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감싸고 성령의 사귄 안에서 서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방향을 갖고 도산소협의회에서 수립된 에큐메니칼한 상호조정 원칙들을 재확인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는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동역교회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이미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책임적으로 참여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접촉을 추구해온 많은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기구들이 보여준 노력에 대하여 치하한다.

세계교회협의회가 한국내에서의 인권과 민주화를 용감하게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 해서 세계교회협의회가 북한과 접촉하여 남북한 대표들을 포함

하여 열었던 두차례의 역사적인 글리온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준 것에 대해서도 이를 치하하는 바이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역사적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과 도잔소 프로세스의 중요한 단계를 이루고 있는 1988년 4월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 메시지”를 충심으로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한국교회내에서 여성들이 이를 위해서 벌려온 일들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낸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조선기독교도연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에큐메니칼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도 이를 치하한다. 우리는 북한의 기독교공동체가 새로운 기회를 얻어 보다 폭넓게 에큐메니칼한 접촉을 가지며 공중 예배를 볼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이를 환영한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도잔소 프로세스의 정신속에서 남북한간의 접촉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며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동안 남북한 기독교

교공동체간의 의사소통의 채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아시아기독교협의회와 일본교회, 미국교회, 소련교회, 중국교회 및 해외의 한인 기독교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역할을 인식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정책성명을 포함하여 미국교회협의회가 벌이고 있는 일운에큐메니칼한 연대와 협력에 있어 하나의 긍정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세계교회협의회는 국제문제위원회가 남북한 양측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지역안에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공동체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를 모니터하고 분석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

국제문제위원회는 정부차원의 기구들과 민간차원의 기구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여 유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맥락속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모든 회원교회들과 유관 기관들 그리고 협의체들이 자국정부들이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 하여 평화와 정의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에 배증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장려하는 바이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건의한다.

한민족은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결정들에 대하여 외부의 간섭이나 후견에 의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주체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 민족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인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1972년의 7·4남북한 공동선언에 내포되어 있는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특별히 미국, 소련, 일본,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국가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통일의 과정은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목적을 수반하는 평화공존의 정신속에서 두 개의 기존 자치체제의 실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한반도의 영구분단이라는 뜻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는 제안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되어야 한다.

한반도상에서 군대 및 군사시설, 무기의 근본적인 감축이 추구되어야 하며, 이는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의 주요한 위협요인 중의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고 불가침선언을 조인하게 된다면 이는 이와 같은 군사력 감축에 유용한 공헌이 될 것이다.

긴장완화에 대한 하나의 공헌으로서 그리고 신뢰의 표징으로서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상에서 모든 핵무기를 즉각 제거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들을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한반도에서 비핵지대가 창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여는 것이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1953년 정전협정의 공동조인국인 미국은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에 협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상에서 군대를 철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유엔은 편견에 사로잡혀 한반도 분단에 연루되었던 역사적 유산을 청산하려는 노력속에서 새롭고 진정으로 불편부당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유엔 한반도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남북한 양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호 군데감축을 감독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하여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양측은 두드러진 인도주의적 문제인 수백만 이산가족들이 처해있는 비극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도 있고 이 문제의 해결이 분단의 영속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고

도로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남북한 양측간에 많은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개방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것이 인도적이고 도덕적인 지상명령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4.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글리온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는 남북한 교회가 1995년을 “통일의 회년”으로 지키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며 세계교회협의회 모든 회원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의체들이 공동기도주일을 지킴으로써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회년을 향한 하나의 단계적인 행동으로서 세계교회협의회는 남북한간의 상호 직접적이고 호혜적인 에큐메니칼한 방문의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모든 회원교회들과 에큐메니칼기구들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연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양측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접촉을 트고 이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접촉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남북한간에 신뢰건설을 촉진시키고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접촉이나 방문을 계획할 때에 그곳의 비교파적인 기독교 생활의 성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방문은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와의 협의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도산소의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어야 한다. 방문은 구성과 재정면에 있어서 에큐메니칼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방문에 뒤이어 방문에 대한 응답으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들안의 교회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고립상태를 극복하게 하는 데에 특별한 짐을 지고 있다.

도로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남북한 양측간에 많은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개방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것이 인도적이고 도덕적인 지상명령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4.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글리온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는 남북한 교회가 1995년을 “통일의 회년”으로 지키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며 세계교회협의회 모든 회원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의체들이 공동기도주일을 지킴으로써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회년을 향한 하나의 단계적인 행동으로서 세계교회협의회는 남북한간의 상호 직접적이고 호혜적인 에큐메니칼한 방문의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모든 회원교회들과 에큐메니칼기구들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연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양측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접촉을 트고 이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접촉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남북한간에 신뢰건설을 촉진시키고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접촉이나 방문을 계획할 때에 그곳의 비교파적인 기독교 생활의 성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방문은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와의 협의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도잔소의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어야 한다. 방문은 구성과 재정면에 있어서 에큐메니칼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방문에 뒤이어 방문에 대한 응답으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들안의 교회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고립상태를 극복하게 하는 데에 특별한 짐을 지고 있다.

교회내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다 폭넓은 공중의 영역에서 한반도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고 또한 이를 유포하는 일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심히 부적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중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과 이 세계교회협의회 정책성명 본문 및 배경문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이 범세계적인 냉전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서간의 대결과 무기경쟁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한반도라는 딜레마의 짐을 가볍게 해 줄 것이다.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이 세계와 한반도를 분열시키고 있는 이념적인 장벽과 적이라는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증오심과 적대감을 극복하는 것은 정치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평화교육의 중심적인 과제이

기도 하다.

최소한 이산가족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상호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항상 한민족 모두를 위한 통일이라는 맥락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에서 열렸던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 “메시지”의 귀절을 인용한다면 “이 중요한 인도적 문제가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한국 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 서로 연대하여 책임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도산소 협의회 이래로 수년 동안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좋은 진전이 있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와 에큐메니칼 동역교회들이 보여준 연대로 인해 많은 긍정적인 단계적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취해졌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광대한 비극은 아직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냉전과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한민족은 인간적인 댓가를 부당하게 지불하였다. 수백만의 이산가족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고뇌는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다. 갈등이 발전하여 핵전쟁 돌발위험으로까지 와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독자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관심사들을 범세계적인 인식으로 부각시키는 데에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러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전인류를 위한 희망이 솟아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민족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참 고 〉 WCC(세계교회협의회:COE)
 ~ World Council of Churches ~

구 분	내 용	
소재지	○ 제네바(스위스)	
설립연혁	○ 1948.8 암스텔담(네덜란드)에서 147개 교회에 의해 설립	
목 적	○ 신앙, 질서, 삶, 노동을 위한 세계적 운동전개 ○ 전소속교회의 에큐메니칼운동 및 선교활동 증진 ○ 교회의 범세계적인 선교활동 및 복음화운동 지원 ○ 지역별, 국가별 에큐메니칼 조직설립 및 공동보조	
회 원 국	○ 115개국의 300여개 교단	
조 직	○ 총 회 : 7년마다 개최 ○ 중앙위원회 : 매년개최, 150명으로 구성 ○ 집행위원회 : 년2회 개최	
남 · 북 한 관 계	한 국	○ 한국기독교장로회(1960년), 대한예수장로회(1969년) 등 2개 교단 가입
	북 한	○ 미가입 ○ '92 호주 사드니 대회사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 * '74. 8 WCC, 북한기독교도연맹의 WCC 가입신청 기각

때문에 한민족은 인간적인 댓가를 부당하게 지불하였다. 수백만의 이산가족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고뇌는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다. 갈등이 발전하여 핵전쟁 돌발위험으로까지 와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독자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관심사들을 범세계적인 인식으로 부각시키는 데에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러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전인류를 위한 희망이 솟아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민족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참 고 〉 WCC (세계교회협의회:COE)

~ World Council of Churches ~

구 분		내 용
소 제 지		○ 제네바(스위스)
설립연혁		○ 1948.8 암스텔담(네덜란드)에서 147개 교회에 의해 설립
목 적		○ 신앙, 질서, 삶, 노동을 위한 세계적 운동전개 ○ 전소속교회의 에큐메니칼운동 및 선교활동 증진 ○ 교회의 범세계적인 선교활동 및 복음화운동 지원 ○ 지역별, 국가별 에큐메니칼 조직설립 및 공동보조
회 원 국		○ 115개국의 300여개 교단
조 직		○ 총 회 : 7년마다 개최 ○ 중앙위원회 : 매년개최, 150명으로 구성 ○ 집행위원회 : 년2회 개최
남 · 북 한 관 계	한 국	○ 한국기독교장로회(1960년), 대한예수장로회(1969년) 등 2개 교단 가입
	북 한	○ 미가입 - '92 호주 시드니 대회시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 * '74. 8 WCC, 북한기독교도연맹의 WCC 가입신청 기각

7. 「평화통일희년을 향한 도쿄회의」 합의문('90.7.10-7.13)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놓아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 4:18~19)

< 도쿄회의의 배경과 경과 >

우리는 1990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의 재일본한국 YMCA회관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가 주최한 ‘조국평화통일

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쿄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도쿄회의는 남북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주관으로 스위스 '글리온'에서의 첫만남(1986년 8월 2일 ~ 5일) 이후 계속 되어온 뜻깊은 만남이 된다.

이 모임은 에큐메니칼 합의정신에 입각한 일관성있는 연속성의 결산일 뿐 아니라 또, 과거 반식민 항일 '2.8 독립선언'의 요람인 재일본 YMCA에서 조국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열망을 직접 함께 나누는 '재일대한기독교총회'에 의해 주최되었다는 데 특별한 의의가 있음을 느낀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지금도 과거의 일제 식민지정책이 가져온 굴욕과 더불어 조국분단에서 오는 동포들 서로의 외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금번 이 모임은 남북 간의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고 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에게도 새 소망을 보여 주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 도쿄회의에는 남북교회 대표단은 물론 주관자인 재일대한기

독교회를 비롯한 해외동포인회 및 세계교회협의회와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형제 자매교회 대표단이 동석해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의 문제를 함께 진지하게 논의했다. 예배와 기도, 네 차례의 주제강연과 토론, 세 차례의 성서연구와 토론, 특별공개강연과 토론, 세계 각 지역 해외동포교회들의 평화통일운동 보고 등에 뜻깊은 동참을 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환영만찬과 문화의 밤 행사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열망을 고취하는 민족 동질성의 뜻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모든 행사는 불행한 분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통일염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통일 의지의 결집임은 물론,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국애족의 결정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힌다.

〈통일희년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다짐〉

우리는 1988년 11월 남북교회가 제2차 글리온 회의에서 채택한 '글리온 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재확인한다. 이 선언은 이미 '7·4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수용한 것이다. 이 선언에 담긴 1995년의 통일희년을 우리는 함께 준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실천하려는 의지와 결단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 1) 우리는 분단조국이 통일조국으로 탈바꿈하는 희년의 기쁨이 분단 쌍방 간에 일방적인 흡수나 정복주의가 아닌 쌍방의 "화해와 공존"의 자세에서 출발할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동안의 민족분단의 역사가 적대적 증오와 대결로 치달아온 비극적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분단을 방조하거나 정당화해 온 죄책을 남과 북 교회가 먼저 회개하는 운동에 앞장 설 것이다.

2) 우리는 남과 북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쌍방 간의 자유왕래와 전면적 개방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것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요인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철폐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산가족들의 기쁨의 재회가 속히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또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일하다가 분단이라는 구조악 때문에 영어의 몸이 된 사람들이 통일지향의 전진적 결의와 결단에 따라 조속히 자유의 몸이 되도록 당국에 촉구한다.

3) 우리는 분단 조국에 평화가 이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미 글리온 공동성명에서 밝힌 우리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다지는 바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병력과 무기와 군사 시설들이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

저야 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남북 당사자 간의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외세의 철수와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한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글리온 공동선언 제6장).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남북당사자들과 관련국 사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토의되고 합의되기를 촉구한다.

- 4) 우리는 현재 합의된 것으로 발표된 “남북 당국자 쌍방의 대화와 접촉”, “북남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성사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민족자주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계속 촉구한다. 이와 함께 남북의 교회는 화해와 평화의 복음 그리고 민족구원의 복음을 성실히 전하기 위해 조건없이 만나고 협의할 것이며, 이미 설정한 회년계획을 매년 단계적으로 세우고 실천하는 일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다.

- 5) 우리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통일을 향한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해 가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8.15 직전의 “평화통일기도주일”의 행사를 비롯한 각종 예배행사 등을 함께 마련하고 상호교류하도록 노력한다.

- 6) 우리는 남북교회 쌍방의 대화와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것은 민족교회로서의 자주성의 발현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선교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7) 우리는 우리의 민족 자주적 화해와 통일의 노력을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면서 우리와 신앙연대를 다지는 해외 형제 자매 교회들과의 지속적인 적극 협력을 다지면서 이행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세계 평화의 구체적인 실

중이고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현실적인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8. 제24차 「북미주 기독교학자대회」 북한측 발표문
('90.8.9-8.11, 북경)

기독교에 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박 승 덕(북한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대화하는 새로운 사상사를 펼치며 북의 학자들과 해외의 기독교인들이 민족통일성업에 공동으로 이바지하려면 기독교에 대한 주체사상의 태도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기간 민족분렬세력이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데서 기독교를 리용하는 책동을 계속해 온 결과 적지않은 사람들 속에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적대되며 공존할 수 없다는 그릇된 리해가 자리잡았습니다. 이남과 해외에 있는 일련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주체사상을 잘못 파악한 데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태도에서 주체사상과 맑스주의를 동일시하거나 주체사상이 맑스주의보다 기독교를 더

배타적으로 대한다는 논조를 펴뜨렸습니다. 이러한 논조는 기독교의 일부 교직자들과 신학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대화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하는 주체사상의 태도를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은 주체철학과 기독교 신학의 대화의 문을 열어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사상 신봉자들과 기독교인들의 공동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됩니다.

김정일 비서께서는 1986년 8월 5일 문헌에서 기독교를 대하는 주체사상의 일관한 관점에 대하여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습니다.

김정일 비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적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시었지 종교와 종교신자를 배척하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189쪽).

주체사상은 새로운 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 위에서 기독교의 본질과 그 변화의 역사적 경향성을 해석하고 현대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분석하며 기독교와의 대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본질을 새롭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종교를 포함한 사회적 의식형태들이 본질을 밝히는데 있어서 그것이 객관세계의 어떤 측면을 어떠한 형식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데 기초하였습니다.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세계를 형상적인 형식으로 외곡되게 반영한 환상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세계관이라는 데서 기독교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맑스는 초기저서인 「헤겔 법철학 비판」 서론에서 종교를 ‘전도된 세계관’(맑스, 엥겔스 전집, 제1권, 466쪽)으로 규정하였으며 엥겔스도 원시 기독교에 대하여 그것이 고대희랍 철학자 필로누스와 로마 스토아학파의 대표자인 세네카의 신비주의 철학에 기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종교를 포함한 사회적 의식형태들이 객관세계를 반영한 지식의 면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담은 사상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는 과학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의식형태로서 객관세계의 본질과 운동법칙을 해명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내세우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일정한 생활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기원 1세기에 로마제국의 예속지역인 소아시아와 근동지방에서 로마통치배들을 반대하고 로마국가의 멸망과 평등이 지배하는 새로운 생활을 념원하였던 노예들과 빈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기독교는 자기 존재의 전 기간 사람들에게 생활의 목적과 이상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설교하였으며 가치관, 윤리관을 심어주는 데 주되는 주의를 들였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구약의 기본사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창조신앙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전개되는 애굽의 통치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도 신론이 기초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론이며 그 특징은 인생관화된 인간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기독교의 본질은 세계관에서가 아니라 압제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을 념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식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 인생관이라는 데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리해로부터 과학적 세계관이나 비과학적 세계관이나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간구원, 인간해방을 위한 삶과 투쟁의 공통된 방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와의 대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역사적 형태들을 구분하고 그 사회적 력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에서는 기독교의 특정한 력사적 형태인 부르쥬아지

에게 복무한 기독교를 주로 분석하고 기독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폭로·비판을 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맑스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단죄하였으며 레닌은 그것을 '대세에서의 행복'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값죽은 정신적 브랜드 술'로 규탄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단계에 와서 기독교의 역사적 형태들을, 첫째로 원시 기독교, 둘째로 국교회화된 기독교와 자본가 계급에 복무한 기독교, 셋째로 현대 기독교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시 기독교는 민중을 위한 종교였으며 노예와 빈민들에 대한 노예소유자들의 억압과 학대를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민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매우 미약하였던 조건에서 기독교는 노예소유자적 착취사회의 멸망과 이상사회의 도래에 대한 민중의 념원을 소박한 구세주 신앙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원시 기독교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기독교이며 기독교의 사명을 전형적으로 체현하고 있습니다. 착취받고 압박받는 민중

을 구원하고 해방할 사명을 지닌 기독교와 그것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배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에 대하여 기독교가 국교로 된 후 노예소유자 국가와 봉건국가의 국교화된 기독교와 부르조아지에게 복무한 기독교의 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이 력사적 형태는 한 마디로 말하여 착취계급의 이익에 복무하고 민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력할을 하였습니다. 노예소유제 시기와 봉건적 중세기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근세 자본주의 시기에 이르러서도 기독교는 착취자들과 야합하고 그들의 착취와 압박에 민중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설교와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자본주의 시기 부르조아지의 착취를 변호하고 근로민중의 사상적 각성을 가로막는 기독교의 해독적 력할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기독교인 자신들에게까지 인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규정한 첫 사람이 바로 기독교 사회주의자인 찰

스 킹스레이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기독교도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기독교신학에서는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국교화되었던, 기독교나 부르조아에게 복무하였던, 기독교와 적지않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그 변화의 주도적 방향의 견지에서 볼 때 기독교 본연의 자세와 사명에 맞게 점차 민중의 편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기독교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세계 종교로서의 특성을 강화하면서도 매개 민족의 토양에 뿌리박고 민중문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기독교의 세속화 운동과 토착화 운동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 혁명신학 등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래세천당으로부터 현세천당

으로, 현실도피로부터 현실참여로, 개인구원으로부터 집단구원으로 자기 주장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현대의 기독교 신학의 전진적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 있는 기독교 교단들과 교파들, 교직자들과 신학자들, 평신도들은 민중과 민족, 인류를 위하여 적지않게 긍정적인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현대자본주의의 사회악을 폭로·비판하고 인간화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동원하며 반핵평화, 공해반대 투쟁과 반제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은 모두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 기독교에 대하여 지난 시기 국교화되었거나 부르조아지에게 복무하였던 기독교에 적용하였던 평가를 기계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주체사상은 현대 기독교와 그 신학이 부정적인 점과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민중과 민족,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긍정적인 점

과 가치있는 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원래 주체사상은 사상분야에서 편협한 배타주의를 결정적으로 반대합니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사상이라면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 의하여 창조되었는지 관계없이 그 가치를 공명정대하게 평가하고 자체의 사상체계 안에 포섭해 나가고 있는 것은 주체사상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입니다.

사랑과 평화, 사회정의와 애국·애족 등 기독교 교리에는 긍정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신학의 종말론과 구원론에서도 가치있는 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 사상과의 공통점을 모색하고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공동의 방도를 탐구하는 것을 주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남조선에서 창출된 민중신학, 이남과 해외의 기독교 신학자들 속에서 제창되고 있는 통일신학과 주체사상의 대화를 시작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문제,

민중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체사상과 민중신학, 통일신학은 첫째로, 민족통일 민족해방의 차원에서, 둘째로 민중구원과 민중해방의 차원에서, 셋째로 인도주의와 평화의 차원에서 적극 대화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은 알찬 결실을 가져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기 서구라파에서 맑스주의와 기독교의 대화가 오랜 역사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심각한 교훈을 남겨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관심사로 되는 운명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시켜 대화를 벌려 나가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개인과 민중, 민족의 운명문제를 떠나서 추상적인 논의만 거듭하여서는 주체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대화를 전진시킬 수 없으며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개척하는 데 이바지할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과 기독교, 주체철학과 기독교신학이 인간의 운명문제를

축으로 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해 나간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인민과 인류의 밝은 장래를 열어나가는 데 웅당한 기여를 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이번의 모임이 주체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대화를 위한 전환적 계기로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민중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체사상과 민중신학, 통일신학은 첫째로, 민족통일 민족해방의 차원에서, 둘째로 민중구원과 민중해방의 차원에서, 셋째로 인도주의와 평화의 차원에서 적극 대화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은 알찬 결실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서구라파에서 맑스주의와 기독교의 대화가 오랜 역사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심중한 교훈을 남겨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관심사로 되는 운명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시켜 대화를 벌려 나가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개인과 민중, 민족의 운명문제를 떠나서 추상적인 논의만 거듭하여서는 주체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대화를 전진시킬 수 없으며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개척하는 데 이바지할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과 기독교, 주체철학과 기독교신학이 인간의 운명문제를

축으로 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해 나간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인민과 인류의 밝은 장래를 열어나가는 데 응당한 기여를 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이번의 모임이 주체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대화를 위한 전환적 계기로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9. 제3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리온협의회」합의서
('90. 12. 4)

1990년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날, 소망과 기대를 품고 북
조선과 남한교회의 대표들, 그리고 기타 13개국 대표들(WCC)의
주최 아래 스위스 글리온에 모여 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 민족통
일을 위한 회년을 준비하는 협의회를 가졌다.

성서에서의 회년은 땅을 빼앗긴 자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갇힌
자들을 모두 해방시키는 은혜의 해(레위기 25장)임을 기억하면서
참석자들은 한국민족이 하나되고 평화를 성취하는 회년을 준비하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
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벧후 3:12)이라는 말씀을 따르기로
하였다.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성서에 기록된 하느님의 약속의 말
씀을 함께 귀담아 들었다. “이것은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의

덕분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누가 1장 78~79절)

글리온 협의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의식하면서 개최되었다. 정치적 차원에서 모든 이념적 기반들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국가 간의 연맹과 연합은 변경되거나 재조정되고, 경제기구들과 구조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군사적 도전들은 냉전후기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였다. 특히 독일의 급격한 통일은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재검토하게 했으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한국과 민족의 통일은 최근 국제적 변화에 비춰볼 때 무척 시급함을 동감하게 하였다.

이에 글리온 제3차 협의회는 남북한 교회대표 참가자 일동은 1984년 도잔소의 합의정신과 글리온 제2차 협의회 선언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회년을 준비하기 위한 5년

9. 제3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리온협의회」합의서
(’90.12.4)

1990년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날, 소망과 기대를 품고 북
조선과 남한교회의 대표들, 그리고 기타 13개국 대표들(WCC)의
주최 아래 스위스 글리온에 모여 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 민족통
일을 위한 회년을 준비하는 협의회를 가졌다.

성서에서의 회년은 땅을 빼앗긴 자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갇힌
자들을 모두 해방시키는 은혜의 해(레위기 25장)임을 기억하면서
참석자들은 한국민족이 하나되고 평화를 성취하는 회년을 준비하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
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벧후 3:12)이라는 말씀을 따르기로
하였다.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성서에 기록된 하느님의 약속의 말
씀을 함께 귀담아 들었다. “이것은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의

덕분이라,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누가 1장 78~79절)

글리온 협의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의식하면서 개최되었다. 정치적 차원에서 모든 이념적 기반들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국가 간의 연맹과 연합은 변경되거나 재조정되고, 경제기구들과 구조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새로운 군사적 도전들은 냉전후기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였다. 특히 독일의 급격한 통일은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재검토하게 했으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한국과 민족의 통일은 최근 국제적 변화에 비춰볼 때 무척 시급함을 동감하게 하였다.

이에 글리온 제3차 협의회는 남북한 교회대표 참가자 일동은 1984년 도잔소의 합의정신과 글리온 제2차 협의회 선언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준비하기 위한 5년

간의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희년 5개년 공동사업 계획

- 1) 민족통일을 위한 세계기도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공동예배순서를 채택하고 새로운 공동기도문을 작성하고 예배에서 사용될 찬송가를 공동으로 선택한다.
- 2)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공동선언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남북교회가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함으로 남북기독교인들 안에서 통일의식을 심화시키도록 한다.
- 3) 남북교회는 민족의 통일을 위한 연대사업을 전개하며, 교회 밖의 민중들과 각계 각층의 통일운동 단체들과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 4) 북남 당국 간에 상호불가침선언을 체결하고 단계적 군비축소의 실현을 촉구하며, 아울러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는 '타임피리트'를 포함한 쌍방의 모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하도록 촉구한다.
- 5)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투옥된 인사들을 위한 석방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 6) 민족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이룬바 '창구단일화'의 명목으로 독점하는 당국의 방침을 지양하고 민간차원의 광범위한 교류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접촉과 상봉에 장애요인이 되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글리온 제3차 협의회를 계승하는 통일성취를 위한 북남교회의 대화 및 만남을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 7) 적십자사를 포함한 다른 모든 단체들을 통하여 이산가족들의 상봉과 고향방문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 8) 북남의 기독교인들의 민족통일을 위한 모든 운동을 세계교회협의회(WCC), 기독교평화협의회(CP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등 세계 기독교 에큐메니칼 공동체들이 지지하고 이와 연대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9) 이상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화년 5개년 공동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우리는 1984년 일본 도잔소 협의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협의와 활동에 여성들과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세계 각처의 기독교인들이 북조선의 기독교인들과 접촉과 대화의 길을 트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동시에 세계교

회협의회(WCC)가 지난 오랜 경험과 에큐메니칼 합의정신을 토대로 앞으로의 접촉에 있어서도 충분한 협의회가 필요함을 재확인하고 강조하였다.

글리온 제3차 협의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통일희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느님과 화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벧후 3:14)

10. 제25차 「북미주 기독교학자회 연례총회」 북한측 발표문
('91.5.28-5.30, 미국 뉴욕)

주체사상의 종교관

박 승 덕(북한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종교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심화되고 있으며 종교인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태도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게 된다. 공산주의 운동 안에서는 오랫동안 맑스-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이 내놓은 종교관이 유일하게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지난 시기 종교인들을 다룬 소련의 경험이 본받아야 할 유일한 모델인 것처럼 간주되었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관을 밝혀주고 있으며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당이 견지하여야 할 종교정책의 올바른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맑스주의의 종교관은 종교를 비판하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하였지만 시대적, 역사적 제한성으로 하

여 일련의 본질적인 부족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사람을 중심으로 종교를 고찰하고 평가하지 못한데 맑스주의의 종교관이 가지고 있는 근본약점이 있다.

맑스주의의 종교관은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하고 그와 결부하여서가 아니라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을 위주로 하여 종교를 해석하고 평가하였던 것이다.

맑스주의 종교관의 역사적 제한성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극복되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종교의 본질적 내용, 역할에 대한 심오하고 전면적인 이해를 준다. 종교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종교관에서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맑스주의에서는 모든 정신현상을 객관세계의 주관적 반영으로 보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종교의 본질을 해석하였다. 특히 생산방식을 사회적 존재로 보고 종교도 포함한 사회의 정신현상들을 사회적 존

재를 반영한 사회적 의식이라는 범주로 고찰한 데 맑스주의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 맑스주의 철학은 객관세계, 사회적 존재의 어떤 측면을 어떤 형식으로 반영하였는가에 의하여 사회적 의식의 형태들을 구분하면서 객관세계를 형상적으로 반영한 의식형태, '전도된 세계관' (맑스, 「헤겔 법철학비판 서론」), 외곡된 사회인 착취사회의 피상적 반영이라는 데 종교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다.

종교가 객관세계를 외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종교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일면적인 견해이다. 종교는 그 발생의 동기와 목적에서 보나 교리의 핵심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세계보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종교는 압박과 착취,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인간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나왔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종교인 천도교는 19세기 60년대를 전후한 시기 부패무능한 리조 봉건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천주교의 침입과 구미 자본주의 침략을 반대하려는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

여 발생하였다.

세계의 3대종교의 하나인 기독교도 기원 1세기에 로마제국의 예속지역인 소아시아와 근동지방에서 로마통치배들을 반대하고 로마 국가의 멸망과 평등이 지배하는 새로운 생활을 념원하였던 노예들과 빈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다. 불교와 회교의 발생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들을 온갖 죄악과 고통, 불행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등하고 화목한 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념원으로부터 교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후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커다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객관세계를 반영한 지식을 얻으려거나 세계에 대한 견해를 내세우기 위해서보다는 압제와 예측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길을 밝히려는 데 종교가 나오게 된 동기와 목적이 있다.

종교는 교리의 핵심을 놓고 볼 때에도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 결

부시켜 전지전능한 절대자라고 하는 신을 내세워 그에 의한 인간의
리상을 종교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관되어 있다.

천도교의 ‘한울님’, 불교의 ‘부처’, 기독교의 ‘야웨’, 회교의
‘알라흐’ 등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종교가 숭상하는 신은 결국 인간
의 리상을 완전무결하게 체현한 성스러운 존재, 사람의 우월하고
가치있는 속성을 가장 완성된 형태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면에서 “인간은 인간에 의하여 신으로 되며”, “신이 인간을
자기 모양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자기 모양대로 만든
것이다”(포이에르바흐, 「기독교의 본질」)라는 포이에르바흐의 지적
은 매우 적중하다.

발전된 종교인 일신교들의 교리에 의하면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선행하는 원인이 없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으
로 독자적인 존재이며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물질세계와 인간을
창조하고 그 변화발전을 주관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교리에 의하면 신은 또한 지식과 의지, 감정을 다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며 별을 내리는 최고의 인격이다. 이것은 일신교의 신이 비록 환상적이고 가상적인 인격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완전한 상태에서 가지려는 사람들의 요구와 지향이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는 모든 것의 창조주, 주재자로서의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무조건 믿고 그에 의존하여야 인간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교한다. 종교에서 인간의 종국적 리상으로 내세우는 ‘극락세계’나 ‘하느님 나라’도 사람의 모든 념원과 지향이 완전히 실현된 신성한 세계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 자기의 리상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신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사상의식의 형태라는데 종교의 본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을 중심에 놓고 신에 의거하여 인간의 운명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세계관이라는 의미

에서 종교를 신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말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서 신중심의 세계관인 종교와 질적으로 구별된다. 사람을 고찰의 중심에 놓고 사람의 운명문제를 푸는데 사명을 두는 것이 주체사상의 근본특성이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가 주체사상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신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의 운명과 세상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신이라고 보는 종교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것은 주체사상이 종교에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비록 신중심의 세계관이지만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인 요구를 구현하고 있고 신과의 관계에서나마 그러한 요구를 실현하는 길을 밝히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 세계관은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길을 밝히려 하는 것만큼 세계의 시원문제를 기본으로 다루었던 지

난 시기의 관념론이나 유물론 철학에 비하여 인간의 운명문제를 전면에서 내세우고 그것을 직접 취급하는 긍정적인 점을 가지고 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의 신관념에 환상적으로나마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낮은 역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종교가 긍정적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천도교는 환상적 형식으로나마 조선민족의 자주정신을 체현한 '한울님'을 믿고 숭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민족의 요구와 리의를 자각하게 하고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사람들을 나서도록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좋은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17세기에 크롬웰의 지도 밑에 전개된 영국 부르주아 혁명이 기독교 신교의 가치를 들었으며 호메이니의 령도하에 벌어진 우리 시대의 이란 혁명이 회교의 깃발밑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종교의 내용을 어떻게 리해하는가 하는 것은

종교관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문헌집, 「주체사상의 기본에 대하여」, 189쪽).

맑스주의는 종교를 비과학적 세계관으로 낙인한 데로부터 그 신비주의적이며 관념론적인 성격을 폭로비판하는 데 주되는 주의를 돌리였다.

엔겔스는 원시 기독교에 대해서조차 그것이 고대 희랍철학자 필로누스와 로마 스토아 학파의 대표자인 세네카의 신비주의 철학에 기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레닌은 종교를 ‘조잡한 관념론’으로 특징지었다.

맑스주의 철학은 무신론과 유물론에 기초하여 종교의 교리가 담겨진 신화적 형상이 사실이 아니라 허구라는 것을 밝히면서 종교가

근본성격에 있어서 신비주의적이고 관념론적이라는 것을 론증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이로부터 맑스주의에서는 종교가 허위이며 그 모든 내용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런데 무신론에 기초하여 종교가 신비주의라는 것을 밝히고 유물론에 의거하여 종교가 관념론적이라는 것을 론증하는 것으로써 종교의 내용에 대한 해부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에서는 한편으로는 신관념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결부되어 있으며 다른 편으로 유물론과 관념론을 가르치는 세계의 시원문제,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보다 신과 인간의 관계문제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고찰하여야 신비주의에 의하여 가리워지고 관념론에 의하여 흐려진 속에서도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 결부된 종교의 긍정적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종교에 나쁜 점만 아니라 좋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옹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종교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공동의
리상인 사랑과 평화, 사회정의와 평등, 영생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공동적인 리상은 착취와
압박, 침략과 전쟁,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며 정의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된 사회를 건설
하며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종교인들은 그 구체적인 표현
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다 사랑과 평화, 사회정의와 평등, 영생을
기본교리로 내세우고 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특히 '억눌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
고 있다. 인간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평화를 들며
그러한 공동체의 화목과 단결,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교리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적인 종교들의 교리에서는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보호하고 악한 세력을 심판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 교리들은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는 영생하려는 사람들의 념원에 착안하여 영생문제를 중시하면서 신을 믿고 그 의사에 순종해야 영생할 수 있다는 교리를 내세우고 있다. 영생의 념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종교가 내세우는 방도는 비현실적이지만 영생에 대한 종교의 교리는 인간을 영생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의 안정을 누리게 한다.

사랑과 평화, 정의와 평등, 영생에 대한 종교교리는 인류의 보편적 리념을 구현한 좋은 사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하며 사람들 사이의 반목과 적대를 배격하고 안면들의 친선을 강조하며 사회생활에서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에서도 사랑과 평화, 정의와 평등, 영생은 중요한 리념

으로 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평화롭게 살려는 것을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로 본다. 사람은 사회적 생명체인 만큼 서로 결합하여 보다 큰 사회적 생명을 지니고 살며 발전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회적 집단에 결합하게 되며 집단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고독에서 오는 고통이며 가장 큰 기쁨은 생명과 생명이 결합되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고 사람의 복리와 발전을 제창하며 사회정의를 구현하려 하며 그 현실적인 방도를 밝혀주는 참다운 인도주의 사상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바와 같이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면 정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질서가 세워지고 발전되어야

한다. 주체사상은 영생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길을 밝혀주는 사상이다.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산존재인 인간은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지며 이러한 요구는 영생에 대한 념원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함으로 육체가 사멸된 다음에도 무한한 생명을 지니는 것이 인간의 절실한 관심사로 된다.

주체사상에서는 천상의 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지상에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가진 영원한 생명체인 인민대중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민대중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발전하는 영원불멸의 사회적 생명체이다. 때문에 개인은 인민대중과 운명을 같이 하고 그들의 자주위업에 헌신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견결히 반대하고 사람들이 동지적 사랑과 의리에 기초하여 서로 도우며 이끌어 나가는 평화롭고 화목한 사회, 정의와 평등의 원칙이 완전히 구

현된 사회를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주체사상은 인간이 유한한 개인의 육체적 생명만을 지니고 살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끊임없이 번영 발전하는 인민 대중과 더불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살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종교교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사상들을 포섭하고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종교가 내세운 영생의 이상까지도 현실세계에서 실현하는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가장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류공동의 요구와 념원을 가장 이상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종교도 포함하여 인류가 창조한 모든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다 포섭할 수 있으며 민족의 단합과 인류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무제한의 포용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종교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종교관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맑스주의는 종교의 본질과 내용을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이라고만 본 데로부터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맑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단죄하였으며 레닌은 그것을 ‘래세의 행복’으로 인민을 기만하는 ‘값없는 정신적 브린디 술’로 규탄하였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맑스주의의 이러한 평가는 종교의 나쁜 점을 그 본질과 전반내용으로 해석한 것과 함께 종교의 계급적 근원을 일면적으로 절대화한 것과 관련된다. 맑스주의에서는 종교가 유지되는 근원이 계급사회의 생산관계와 계급들 사이의 적대적 모순에 있다고 보면서 종교교리에는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반동통치계급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로부터 맑스주의는 모든 종교교리를 착취계급에게 복무하는 반동사상으로 보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도 인민대중에 대하여 해독적

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물론 기독교나 회교, 유교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교에는 봉건왕권을 신성화하는 왕권신수설을 비롯하여 착취계급에 복무하는 교리들이 있다. 이러한 교리들이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반동적인 착취제도를 옹호하는 해독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종교교리의 부정적인 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반동적 역할을 종교의 전반적인 사회적 역할에 기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일면적인 견해이다. 종교에는 그 교리의 좋은 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정적 역할도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종교들의 역사를 보면 원래 종교의 고유한 사명과 역할은 초기종교에 체현되어 있다. 초기종교는 거의 다 인민을 위한 종교였으며 노예와 빈민들에 대한 노예소유자들의 억압과 학대를 반대하였다.

당시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매우 미약하였던 조

건에서 초기종교는 노예소유자적 착취사회의 멸망과 이상사회의 도래에 대한 인민의 념원을 소박한 구세주 신앙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초기종교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종교이며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대중을 구원하고 해방할 사명과 역할을 전형적으로 체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예소유자 국가와 봉건국가의 국교화된 종교와 착취계급에게 복무한 종교는 초기종교의 타락되고 개악된 역사적 형태이다.

국교화되었거나 착취계급에게 복무한 종교가 고대 노예소유자 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착취와 압박에 인민대중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설교와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고 엄중한 죄행을 감행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자본주의 시기 부르주아지의 착취를 변호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적 각성을 가로막는 종교의 해독적 역할에 대해서는 벌써 적지않은 종교인 자신들에게까지 인식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한 첫 사람이 바로 기독교 사회주의자인 찰스 킹스레이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착취계급 특히 부르주아지에게 복무한 종교를 주되는 비판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착취계급에게 복무한 종교의 반동적 역할을 종교의 본래적인 역할과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였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종교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종교신학에서는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종교는 그 본연의 사명에 맞게 점차 민중의 편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내는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현대종교는 매개 민족의 토양에 뿌리박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 기독교의 해방신학, 혁명신학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래세천당으로부터 현세천당으로,

현실도피로부터 현실참여로, 개인구원으로부터 집단구원으로 자기 주장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현대 기독교신학의 전진적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남조선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 있는 종교의 교파들과 교단들, 교직자들과 신학자들, 평신도들이 민중과 민족, 인류를 위하여 적지않게 긍정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종교인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악을 폭로, 비판하고 비인간화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종교인들의 공동체를 동원하며 반핵평화와 공해반대투쟁, 반제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사실은 모두가 공인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현대종교가 부정적인 점과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민중과 민족,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응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원래 주체사상은 사상분야에서 편협한 배타주의를 결정적으로 반대한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사상이라면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에 의하여 창조되었는지 관계없이 그 가치를 공명정대하게 평가하고 그러한 사상들과 적극 대화해 나가는 것은 주체사상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을 통일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인류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현대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투쟁에서 종교인들과의 련대와 합작을 강화발전시킬 것을 주장한다. 주체사상은 종교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심오한 리해를 확립한 데 기초하여 종교인들을 포섭하고 그들과 단결해 나갈 것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일찌기 항일혁명투쟁 시기부터 시종일관 종교인들과의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이 사업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량심적인 종교인들을 따듯이 포섭하고 그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은 오래 전부터 우리 당이 견지하여온 일관한 정책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종교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종교의 좋은

점을 살려 그들이 민족 공동의 위업,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적극 나서도록 고무해왔다.

종교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공격하거나 종교인들에게 사상적 개변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의 과의 단합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방침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종교의 우점을 긍정하고 그것을 더욱 조장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순진한 마음으로 종교를 믿는 선량한 대중과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적 지배계급들을 엄격히 구별하며 종교교리의 긍정적인 면과 종교교리를 지배계급의 요구에 맞게 외곡된 반동사상을 갈라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종교인들에게 하느님을 믿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믿을 바에는 미국의 하느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조선의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종교의 탈을 쓰고 침략적 만행을 감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인민과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종교적 량심을 바쳐가는 참다운 애국적 종교인으로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당은 해방 직후부터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여 주었으며 이와 함께 종교를 침략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단호하게 투쟁하였다.

오늘 여러 나라들에서 종교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정부의 종교정책이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종교로 하여 제기되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없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종교정책은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는 성업에서 앞으로도 더욱 큰 생활력을 발휘할 것이다.

11. 제2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쿄회의」 결의문('91.7.12)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겨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나 이
해는 너희에게 회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레위기 25:10)

1. 조국의 평화 통일과 선교의 실현을 염원하는 남과 북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해외동포 기독교인들이 제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주최로 1991년 7월 9일 - 12일까지 제일 한국 YMCA에서
도쿄회의를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도쿄
회의는 남북(북남)교화들이 전개해온 한반도 평화통일운동 역
사의 한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모임이다.

1984년의 도산소회의, 1986년과 1988년의 글리온 1차, 2
차 회의, 1989년의 미국회의 그리고 1990년의 1차 도쿄회의

와 역사적인 회년 5개년 공동사업 계획을 선포한 글리온 3차 회의 등과 같은 남북(북남) 교회들의 고난에 찬 평화통일 운동의 연속성을 가진 이번 2차 도쿄회의는 에큐메니칼 합의정신에 입각한 남과 북(북과 남) 그리고 해외 동포 기독교인들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열정을 순수하게 표명한 모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포한 성서의 회년이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통일에서 성취될 것임을 확신했다.

2차 도쿄회의는 세차례의 주제강연과 지역보고 그리고 진지한 토의를 통하여 남북(북남)의 기독교인들과 해외동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평화통일 운동을 실천해 왔느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조선)의 밤축제와 코이노니아 행사는 여전히 상존하는 한민족 동질성을 재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북조선 형제교회의 글리온 합의문 실천과 도쿄회의 합의문 실천에 대한 보고 그리고 해외 동포 교회들의 예언자적이고 사도적인 평화통일 운동 보고는 참가자들 모두의 평화통일 운

동의식을 촉발시키고도 남음이 역력했다.

2. 한반도(조선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온겨레의 뜻과 염원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렬해지고 있는 이 때에 국내, 국제적 환경은 이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볼때 통일에 장애가 되는 모든 제도적 조치 및 약법들은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토록 일관성있게 남북 당국자들에게 주창해온 미군철수, 핵무기 철폐, 남북(북남) 불가침 선언 등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은 전혀 사정이 다른 한반도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측해 왔던 국제 경제구조 변화는 제3차 세계국가들에 대한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지배 질서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특히 걸프전 후 군사 강대국들 사이에서 해빙 무드에 들어섰던 냉전 체제는

재무장 체제로 전화해 버림으로써 군사적 패권주의가 부활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한반도(조선반도)는 현재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조국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2차 기독교인 도쿄회의에 참가한 기독교인 일동은 이제까지 전개되어온 남북(북남)교회의 평화통일 운동 정신을 계승하면서 평화통일 회년의 성취를 위한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조선기독교도련맹(KCF)이 협력하여 노력해온 한반도(조선반도) 평화통일 운동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러나 남북(북남) 교회만으로는 평화통일 운동이 만족할만한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1차 도쿄회의 합의문에서 결의한 다음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

을 공동으로 인식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 자주적 화해와 통일의 노력을 조국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면서 우리와 신앙연대를 다지는 해외 형제 자매교회들과의 지속적인 적극 협력을 다지면서 이행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세계 평화의 구체적인 실증이고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현실적인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1차 도쿄회의 합의문 2:7)

2) 우리는 1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평화통일 해외동포교회 협의회(가칭)”가 결성되도록 만반의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조선기독교련맹과의 협력 및 공동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3) 우리는 남북한 교회 대표들이 3차 글리온 협의회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준비하기 위한 5개년 공

동사업이 정해진 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지역에서라도 긍정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한민족(조선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민족 대단결, 한반도(조선반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남과 북(북과 남) 그리고 해외동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평화통일 운동 단체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연대할 것이다.

3.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은 모든 사상, 제도, 체제를 초월한다. 하느님의 회년은 모두가 다 처음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며 평등한 자격과 조건으로 삶과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이러한 회년이 한반도(조선반도) 평화통일로 실현될 수 있기 위하여 남북(북남) 그리고 해외동포 교회 등은 교육과 기도와 예배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노력할 것이며 1995년의 조국의 평화통일 회년은 기필코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12. KNCC 권호경 총무의 설교문('92.1.12, 평양 봉수교회)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옵는 강영섭, 고기준, 김운봉, 이성봉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 여러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해주신 조선기독교도연맹과 봉수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갈라진지 47년 만에 부족한 종을 공적으로 이곳 평양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봉수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이 사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 반도의 교회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감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과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올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오늘 이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과 더

불어 북남 천만이 넘는 기독교인들과 7천만 민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곳에 온 부족한 저는 남쪽 교회의 지극히 작은 보잘 것 없는 한 종으로서,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님과 교단 총회의 남쪽교회를 대신하여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오시고 협력해 오신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들을 대신해서 문안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자매형제 여러분,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작은 종으로서 북과 남의 분단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네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 “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용서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악령들의 힘에 의해서 분단된 민족의 고난과 희생, 민족자존을 위한 이 민족의 몸부림의 현장에서 추한 제 자신을 부정하거나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워주신 십자가의 짐을 다 짊어지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오니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합시다”. (골 3:13)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한 민족으로 한 피를 받아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통과 거주와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 땅을 골고루 나누어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반도 땅에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한 피를 받아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이것을 사주팔자 소관, 혹은 운명이라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또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발버둥치는 것,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뇌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분 한분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세상, 이 우주 속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귀중한 생명을

지닌 존재들로서 반도 땅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이땅에 주신 이 민족의 고난과 기쁨, 생과 죽음을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내신 이 민족의 신음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라면 언제든지 죽음의 십자가까지 질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끝내는 우리의 고발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바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족분단의 갈등의 현장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를 믿고 좇아 살려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요, 형제요, 부모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인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양 봉수교회 여러분 앞에 선 저의 초라한 이 모습을 보니 목사로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중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봉수교회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그의 사랑, 그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민족분단이란 구조적인 악, 이 거대한 악령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자매형제들이 온갖 시련과 희생을 피할 수 없는 이 구조적인 악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를 따르지 못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자매형제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끝까지 하나되게 이끄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역사적인 예배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는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데올로기로, 무기로, 경제력으로, 여러 민족을 여러 명분으로 묶어서 지배하고 착취하던 세력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성숙한 민족은 진리를 추구하며, 타 민족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되, 지배받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역사, 제 뿌리, 제 민족, 제 핏줄을 찾아 온 힘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북미대륙에서,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의 도도한 흐름의 한 면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것은 제국주의 시대가 쇠퇴해가고 인간의 자주권과 생존권, 그리고 자유권과 존엄권이 보장되는 민족해방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도 언제나 악령들의 장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확고히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너

와 내가 다시는 싸워서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늦게나마 예언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88년에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했고, 또한 같은 해 북남 기독교가 글리온에서 함께 모여 「평화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90년말에는 북남기독교가 글리온에서 이 선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위하여 「1995 평화통일 희년 5개년 공동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수난과 희생, 그리고 자기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고 비우며 이미 휴전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의 평화통일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되게 이끌어오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 해는 북과 남이 46년만에 자주적으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그동안 기독교적 입장에서 민중의 통일요구를 수렴하려고 북남 기독교가 선언해 온 내용의 대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 합의서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문건이 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7천만 자주 민족이 민족의 자존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합의서들을 자주적으로 발효시켜 자주적으로 실천해 가느냐 하는 과제가 바로 여러분과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과제가 북남 간에 최우선적 과제요, 따라서 남북의 천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 16:24~35)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분단으로 인한 모든 악을 제거해 가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우리의 몸

으로 산 제사를, 이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일찍이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에 바울 사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져 싸우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끌어내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일치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온갖 고통과 고뇌가 그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유대인과 이방인 속에—갈등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쌓아올린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또한 하나로 만드시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법조문과 규정을 폐지해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각기 다른 두 민족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와 혐정들을 없이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다같이,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지고, 누가 이기고가 아닌, 저들 모두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같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궤홀리심과 그의

죽으심이 없이는 그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를 따라 휴전선 한복판에서 천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할 때 이 민족의 평화통일의 날이 앞당겨질 것을 확신합니다. 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은 십자가의 희생없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탈냉전 시대에 또다시 역사를 역행하려는 악령들이 악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유럽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거대한 유럽을 재형성해 가는가 하면, 2차 대전의 전범국가인 독일은 해외파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전범국가인 일본 역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기반으로 재무장을 하는가 하면 해외파병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강권을 행사

하고 있으며 '세계 새 질서'라는 미명 아래 새로운 제국주의를 위하여 식량무기화를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이 악령들은 항상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결코 길지도 않습니다.

이제 1995년 평화통일 회년도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등이 있는 이 세상에 오시듯이, 우리는 민족분단의 현장으로 과감히 나아가 민족통일에 지해가 되고 있는 모든 법조문과 규정들을 폐지해 가는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고, 서로 교류하며, 서로 상대의 모습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과감히 지적하고 고치고, 서로 배워가는데 회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평화통일 회년 5개월 공동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해냄으로 북남 기독교의 영적일치와 7천만 민족의 정신적 일치를 이룩해 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 회년사업의 구체적인 실천이 곧 북남합의서를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분단 50년이 되

는 해에는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것이 명예이든, 재물이든, 재주이든, 지식이든 더이상 버리려 해도 버릴 것이 없도록 민족의 자주적 통일에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바칩시다. 이 길만이 이 민족의 살 길입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의 손자와 후손들에게 다시는 쪼개진 나라를 물려주지 않게 될 길입니다.

이 반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대동단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독교의 모든 기득권을 가차없이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에 바칠 때, 민족도 통일되고 기독교도 이 민족의 사랑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에 따라 다시 생성되고 확장되어 오히려 기독교의 본래적인 자리를 확고히 해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9장 2~3절에서는 피를 나눈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적 삶으로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를 따라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민족의 자주적 통일에 바칩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되게 이끌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우리를 하나되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1995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민족의 평화통일 회년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옵는 부모,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가운데 안녕히 계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원합니다. 또 뵙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 하나 하나를, 눈동자

하나 하나를 간직하고 다시 남쪽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리
겠습니다. 우리 서로 민족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13. 제26차 「북미주 기독교학자회 연례총회」 북한측 발표문
('92.7.9-7.11, 미국 뉴욕)

민족통일을 위한 기독교자의 과제

김 근 영 (평양신학원 학생, 전도사)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처럼 '북미기독교학자 26차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의 참가를 허락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기회에 '민족 통일을 위한 기독교자들의 과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이 기회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과 해외 교우 형제들에게 조국의 북녘에 있는 교우들의 뜨거운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 북, 남, 해외에서 모여오신 교우 형제들의 모습을 대하니 새삼스럽게 조국이 당하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가 정의롭고 평화롭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단란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우리 나라 땅을 하나로, 거기서 살 우리 민족도 단일민족으로 창시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하나의 핏줄을 이어가며 단일민족으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창조하며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외세로 인하여 백두산으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우리 강토는 두 동강이 나고, 우리의 부모처자는 남북으로 헤어져 서로 소식 한 장 전하지 못한 채 근 반세기에 이르는 옥된 분단의 세월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분렬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어찌 필설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본래부터 하나가 아니고, 둘로 되어 있었던들,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은 우리 겨레가 아니었던들 아픔은 이다지도 견디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도 어찌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통일강산 그 대로이고, 저 못새들은 분단의 장벽도 아랑곳없이 북으로, 남으로 날아대고 있으나 우리 겨레들은 이 시각에도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른 원한의 군사분계선, 민족의 혈맥을 끊어놓은 콘크리트 장벽을 저주하며 방향의 한을 달랠 길 없어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북녘땅에 위치하고 있는 아호비산맥의 두루산으로부터 시작된 림진강의 물은 오늘도 민족분단의 설움을 안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분단과 민족의 분렬은 이 민족 안의 그 어떤 내부모순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분렬은 어디까지나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며, 민족의 통일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동서 고금의 력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악의 세력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법이요, 화근은 뿌리뽑히기 마련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은 기필코 하나로 통일되고야 말 것이며, 모두 함께 통일된 강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시요” (엡 4:3)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전해진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어이 통일로 도달하게 하는 그 기초를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기초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영원한 사랑의 체현자이신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성하는 것들 속에, 모든 사건들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느님께서 지키시고, 하느님께서 무소부재하신 이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이며 통일의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되시는 그이만이 오직 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의 주님을 섬긴다는 여기에 또 하나의 통일
일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훌륭한 통일
의 기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몸에
생명을 주는 숨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몸에, 그 지체들인 신도들
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을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의 성령이 있고 또 그가 역사하시는 한 모든 지체, 모든 몸은
하나로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가 있는 이상 몸이 있기 마련이
며, 머리와 몸의 결합은 하나의 전일체 형성의 필연적인 법칙입니
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역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
리들 가운데서는 활동무대도 다를 수 있고, 생활양식과 삶의 방법
도 다를 수 있으며, 주의 주장과 사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소망, 하나의 목표, 즉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의 국토도 하나이고 우리의 민족도 하나이며, 통일에 대한 우리의 지향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혈통을 지닌 단일민족이며, 우리 조국도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하나의 강토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써도 하나인 우리 민족을 서로 다른 두 민족으로 갈라놓을 수 없으며, 한 몸뚱아리와도 같은 우리 조국을 둘로 토막쳐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은 절대로 둘로 갈라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기초가 있다는 믿음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약속과 경륜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22)고 교훈하시었습니다. 하늘나라도, 우리의 통일도 우리 자신들의 노력과 투쟁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여러분! 분렬은 매국이요, 통일은 애국이며 분렬은 죽음이요, 통일만이 살길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강토 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 5:9)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으며, 평화적 전제가 없이는 평화적 통일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약 4:3)할 때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영

광과 명예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롬 2:10).

여기서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은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하기에 지금 온 거래가 이것을 열렬히 찬동하며, 그의 리행 여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서’를 철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단계적인 군축을 실현하며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그만두고 동족을 적으로 명기한 ‘국가보안법’ 철폐, 방북 통일인사들을 석방함으로써 첨예한 대결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가 루적됐던 오해와 불신을 가실 수 있고, 신의있는 대화를 할 수 있으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혈육간의 뉴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몸도 녹일 길이 없지만 둘이 같이 자면 서로 몸을 녹일 수 있다. 혼자서 막지 못할 원쑤도 둘이서는 막을 수 있다. 세 겹으로 줄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전 4:11-12)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는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어느 동네나 가정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우리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 재산 유무의 차이를 초월해서 모두 다 단결해야 합니다. 민족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도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위한 통일의 한 길에서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또한 그 어느 당파나 단체도 자기의 리해관계와 주의주장을 절대화하거나 ‘누가 누구를’ 하는 대결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큰것을 위하여 작은것, 전체의 리익을 위하여 개별적인 리익을 복종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사상과 제도를 걸고 적대시하거나 차이점만 내세우면서 서로가 배척한다면 언젠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수 없고 필경에는 외세의 룡락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의 뜻을 품고 나서는 사

람이라면 넓은 도량과 아량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제자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마 18:22)고 가르치시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웅졸하거나 편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이건 또 지난 날의 잘못이 크건 작건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과는 다함께 손잡고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문제는 남을 쳐다보거나 남의 장단에 춤을 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의 주인들입니다. 동풍이 불건, 서풍이 불건, 태평양 바람이 불건, 씨비리 바람이 불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림없이 반석과 같이 굳건히 서서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

의를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은 인류역사가 실증하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찌기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롬 9:3)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에 앞서 민족의 한 성원입니다. 우리는 조선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제인 조국통일을 위한 성업에 한 몸 바쳐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모두가 한 몫씩 기여를 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세대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분단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넘겨준다면 조선의 그 어느 민족주의자도, 그 어느 공산주의자도,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어이 우리 세대에 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1995년을 통일의 희년으로 맞이합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군병들의 의로운 행로에는 언제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며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4.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순서 및 예배문
('92. 8, KNCC 작성)

(* 표는 일어서서)

* 입례송 53장(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다함께

* 예배의 부름

인도자 :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하

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회 중 : 주께서 조국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시기 때문

입니다.

인도자 :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

회 중 : 재단의 예물보다 형제 간의 화해를 기뻐 받으

십니다.

다함께 : 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다함께 : 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 찬 송 21장(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교 독... (한반도 민족통일을 위한 세계기도주일 기도문 중에서) 다함께

인도자 :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전

해 주시며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고 노예가 해방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약

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을 서로 화해시키시고

헤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고

하나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회 중 : 주여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인도자 : 주님은 평화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약속하셨으며

저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

니다.

회 중 : 저희는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즐거워하며

확신하며 찬양을 드리옵니다.

인도자 : 주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징조를 보여주

셨으며 40여년 동안 이 한반도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래 건딜 수 있는 힘을 주셔

서

회 중 : 정의,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도자 : 주님은 너무도 오랫동안 끌어온 어둠 속에

서 작은 빛을 주셔서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 중 : 통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화해와 소망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인도자 : 성령이여 오셔서

저희들에게 회년의 복음과 해방과 자유와 일치 기쁨을 주시고 분단의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 주시며 불신과 편견, 미움과 질투, 욕심과 권력으로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 중 :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인도자 :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비

읍니다.

회 중 : 온 세상과 한반도에 평화와 일치를 위한 당신
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읍니다.

다같이 : 남과 북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온 세계에 있
는 믿음의 식구들이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읍니다. 아멘.

찬 송 523장(나 형제를 늘 위해) 다함께

기 도말은이

- 1) 분단의 죄책을 고백하며
- 2) 분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3) 1995년 평화통일 회년을 위해

성경봉독 1 레위기 25:8~19 말은이

성경봉독 2 에베소서 2:13~18 말은이

찬 양 싱가포르

말	씀	설교자		
찬	송	265장(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함께	
공	동	기도	1992년도 남북 평화통일주일 공동기도문	다함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저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목이 곧아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였으며

민족의 피의 호소를 외면하였습니다.

주께서 이제 분단의 장막을 가르시며

화해와 평화의 새 날을 열고 계시니

겨래의 새아침이 주 안에서 시작됩니다.

종의 멩에를 벗겨주신지 50년,

희년의 기쁨이 넘치는 그 날에는

흩어진 한 핏줄이 같이 모이고

남북의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이고

남북의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놀며

나누인 붓물을 터서 하나의 강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해방의 50년, 회년의 그 날에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평화의 종소리로 하늘을 채우소서.

회년의 소망이 새벽별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들 앞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로,

기도와 신앙으로 풀어가게 하옵소서.

더이상의 거래의 시련이 없도록

더이상의 갈라짐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여 꿇어진 허리를 잇고

무너진 민족의 정기를 다시 세울 때까지,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기까지, 그리하여 마침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남북의 성도들이 이 일에 하나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 송	369장(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함께
성만찬에의 초대		집례자

인도자 : 지금 우리는 민족 간에 전쟁이 쉬지 않고 있

 는 이 역사 속에 구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
 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리스도를 따르기로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되었

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을 이 성만찬 식탁에 초대하시고 흑암에 놓인 우리들을 영생의 신비에 이르게 하십니다.

회 중 : 주여, 이 귀한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웁니다. 우리의 찬양과 십자가의 결단을 받아주옵소서.

찬 송 284장(주 예수 해변서) 다함께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

인도자 : 주여, 이제 이 성만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회 중 : 우리에게 허락하신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피가 되는 신비에 이르게 하옵소서.

인도자 : 우리가 비록 이전까지는 폭력과 전쟁의 노예
였고 민족분단과 고통과 죄악을 외면한 비겁
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회 중 : 이 성만찬의 신비를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으
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함께 :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지금 이곳에 오
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만찬 제정의 말씀 집례자

인도자 :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
사드린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
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
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
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

셨습니다.

회 중 :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자 : 이제는 이웃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자기 몸을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민족과 역사 앞에 바쳐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성직자들의 수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끌고다오 오르며 폭력의 제물로 죽어간 성도들, 이데올로기의 희생물로 죽어간 자메들과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 중 : 오 주여, 모든 교회와 성도와 피조물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 찬 레 집례자

인도자 : (떡을 높이 들고 우러러보며)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
다.

회 중 : 아멘.

인도자 : (잔을 높이 들고 우러러보며)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
다.

회 중 : 아멘.

성만찬 찬송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동안) 성가대
헌 금 1995 회년 공동사업을 위하여 다함께
헌금기도 말은이
* 찬 송 521장(어느 민족 누구계나) 다함께
* 축 도 말은이
* 우리의 소원 다함께

15. 제3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쿄회의」 결의문('92.10.22)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미가 4:3-4)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의 주최로 1992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YMCA동맹 도잔소에서 “민족 대단결에 대한 신학적 평가”라는 주제로 “조국 평화통일 선교에 관한 제3차 기독교인 도쿄회의”가 열렸다.

이 모임이 1984년 조국의 통일을 처음으로 논의하게된 일본

YMCA동맹 도잔소에서 그 뜻을 이어 가고자하는 남북(북남)의 기독교인들과 해외동포기독교인들의 염원을 모아 열리게 된것은 매우 의미깊은 일이다.

더욱이 이번 도쿄회의는 북남(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협력교류(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조국통일운동등의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 회의에는 재일대한국교회들을 비롯하여 남북(북남)의 그리스도인들과 북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참가하여 성경 공부와 주제 강연을 듣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우리는 예배와 경건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귄과 우의를 두텁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민족의 단결을 통한 통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남과 북(북과 남) 그리고 해외의 그리스도인들은 1995년 희년의 해로 기필코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들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

1. 우리의 통일은 민족 대단결의 정신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2. “남과 북(북과 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한(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조속하고도 성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화해와 일치를 위해 남과 북(북과 남) 교회가 교환 방문하여 국내에서 남과 북(북과 남) 및 해외 기독교인들이 함께 통일 기도회를 갖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16.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앞 초청장('93.3.26)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장

정 신 혁 도하

정신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인 동덕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오
며 남북천도교의 교류협력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심고드립니다.

어느덧 내년은 동학혁명 100주년이 됩니다.

오는 4월 5일 포덕 134(1993)년 「천일기념일」에 도하를 비롯한
교역자(10명 내외)를 서울로 초청하오니 부디 오셔서 천일기념식
을 더욱 뜻있게 봉행하는 동시에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행사를 공
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을 비롯한 남측 천도교인의 북한방문을 희망하오니

이를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께서 이를 수락하신다면 남북당국의 승인하에 판문점을 내왕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와 협력, 그리고 신변안전보장은 물론 편히 다녀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를 판문점에서 양측 3명 내외로 하여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바라면서 거듭 도하를 비롯한 동덕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포덕 134(1993)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천도교중앙총부

교령오익제심고

17. 남북 부활절 연합예배 공동예배 메시지
('93.4.11, 남:여의도광장, 북:평양 봉수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칠천만 동포들에게 전합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부활절은 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일제하에서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절 예배로 한 자리에 모여 자주독립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비록 뜻하지 않은 국토분단으로 우리가 나뉘어졌지만, 남북의 성도들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민족의 평화통일 회년을 바라보며 1993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남북교회가 공동으로 드리게 됨은 매우 뜻깊고 기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남북교회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공동예배를 통하여 민족 평화통일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희망합니다.

1993년 남북교회 부활절 공동예배를 맞이하여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18. 범종단 남북교류추진협의회의 남북이산가족 자유왕래 촉구선언문(안) ('93. 5. 21)

본협의회는 91. 5. 23 창립된 국내 6개종단 (가나다순 :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의 고위성직자 31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남북간 종교교류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온 바 어언 창립 두 돌을 맞음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남북이산가족 자유왕래촉구선언문”을 채택 국내외에 선포한다.

1.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조국의 강토가 남북으로 나뉘어 지게 된 것은 우리 겨레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불행한 역사의 산물이었음을 상기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성취를 위한 주변 제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촉구한다.

2. 광복후에도 우리 민족이 통일을 위하여 3·1독립정신으로 하나

가 되어 노력하였다면 분단의 불행한 역사가 이렇게 오래 지속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1950년 6.25동란의 발발은 우리 강토의 장기적인 분단과 함께 민족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겨레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먼저 6.25의 책임이 바르게 가려져야 하고 전쟁도발의 과오를 범한 측은 역사적 진실에 대해 사과하고 뉘우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최근에 북측이 제기한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은 무조건 철회되어야 하며 이미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원칙을 준수하는 길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도 1,000만 이산가족 왕래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할 것이다.
4.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며 선진통일 조국창조의 시대적인 사명을 통감하고 있는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통일을 논함에 있어서 인

도주의적인 인륜과 도의에 입각한 대화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남북종교인들은 같은 피를 나눈 혈육의 정으로 솔선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로써 우애와 화합을 도모하는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5. 부모와 자식 형제 남편과 아내가 이별의 쓰라린 슬픔을 안고 소식도 모른 채 긴 세월이 흘렀다. 죽기 전에 고향산천을 밟아 보는 것이 소원이고 그리운 가족과 친지를 한번이라도 만나보겠다는 천만이산가족의 애절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북이산가족의 자유왕래는 시급히 실현되어야 한다.

6. 탈냉전시대로 재편되는 이 시점에서 문화민족의 전통을 이어갈 최선의 과제란 민족내부의 단절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남북한 당국은 남북사이의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이미 발효시킨 바 그 중에서도 남북이산가족 자유왕래 문제를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아 남북간의 문턱을 낮추는 가

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7. 또 한번 6월이 찾아오고 있다. 우리 민족의 비참한 역사를 상기하게 되는 이번 6·25를 기하여 이 민족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아름다운 역사가 태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남북 종교인들이 그 선도적인 사역에 솔선해서 동참할 것을 제창하면서 이를 국내외에 엄숙히 선언한다.

1993년 5월 21일

범종단남북교류추진협의회

조향록 회장 및 회원 일동

19.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기도문
('93.8.15, 평양 봉수교회 작성)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사 영생과 평화의
계약을 맺어주신 하느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평화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과 정의, 평화와 하
나되게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라져 싸우지말고, 서로 사랑과 용서로
화해하고 단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조국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을 아직도 실현하지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
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세에 의하여 분열되고 반세기동안이나 온갖 불행과 고통

을 당하여 온 우리 민족이 오늘은 열핵전쟁의 참화까지 입게 될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오 주여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삼천리금수강산 이 나라에 외국군대와 핵무기가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강산이 되게하여 주소서.

민족의 슬기와 영예를 떨치게 하는 민족의 정신인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전민족이 단합되도록 하여주소서.

동족사이에 주의주장과 제도가 다르다고 불신하고 원수로 여기는 일이 더는 없게하며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주소서.

주여 우리 민족은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어도 하나의 피줄을 이은 동족입니다.

사상과 리념은 달라도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야 할 형제들이며 언제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야 할 하나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 나라 강산에 평화의 종소리, 통일
만세소리 높이 울리게 하여주시옵소서.

해방의 50년 통일희년의 은혜의 그 날을 환희와 감사로 맞게 하
여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북과 남의 성도들이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 막힌 담을 헐어버
리고 민족의 절박한 소망인 조국통일을 이루어나가도록 하여주시옵
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 북한 교회재건 실천강령('93.9.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 우리는 남북한의 분단과 북한교회의 황폐가 우리 남북한 민족이 범한 불신앙의 죄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달아 이를 회개하며, 남북의 통일과 북한교회의 재건이 이 시대의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한국교회가 이루어야 할 지상 과제를 통감하며 이를 위해 기도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우리는 남북통일과 북한교회의 재건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바탕으로한 남북간의 상호 용서와 화해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믿으며 또한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협력체계를 이루어야 함을 확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안에 “남북교회 협력 및 재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선교전략을 공동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해 나아가기로 한다.

3. 우리는 오늘날 선교현지에서 범해지고 있는 경쟁적 및 물량주의적 선교를 지양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북한에 단일 기독교 단 교회를 세운다.

4. 우리는 북한교회 재건의 조건을 6·25 이전까지 존속했던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되 현재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재건 및 개척한다. 그리고 북한교회의 재건을 위해 가능한한 현존하는 북한교회와 협력하되 6·25 이후 황폐화된 북한교회의 남은 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북한교회 재건을 주도하도록 한다.

5. 한국교회는 북한교회 재건에 필요한 사역자를 선발하여 훈련시키되 북한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리고 북한의 신학교를 강화하여 복음사역자를 양성한다.

6. 한국교회는 북한교회 재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북한교회 재건모금위원회”의 주도하에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7. 한국교회는 북한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해외의 한인교회 및 세계교회와 간밀히 협력한다.
8. 한국교회는 북한교회의 재건을 위해 상기 실천사항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자체갱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1.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앞 편지('94. 1. 24)

천도교 중앙총부

오 익 제 교령 도하

나는 민족의 역사에서 자랑스런 사변들로 충만된 1993년을 보내고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새해를 맞으면서 도하께 이 통지문을 보내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4년은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구호 밑에 전개된 갑오농민전쟁 100돌이 되는 해입니다.

갑오농민전쟁 100돌을 북과 남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것은 천도교인들을 비롯한 갑오농민전쟁 봉기자들의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애족정신을 살려 외세와 그 추종세력을 반대하고 민족의 화합과 단결

을 도모하며 90년대 통일성업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
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는 쌍방이 이미 합의한 대로 갑오농
민전쟁 100돌을 북과 남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문제를 귀측과 구체
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오는 2월 3일(목)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
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한영수 부위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대표를 내보내기로 하였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긍정적인 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류 미 영 심고

1994년 1월 24일, 평양

22.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앞 편지 ('94. 2. 1)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류 미 영 위원장 도하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교인 동덕 여러분께 한울님
과 스승님의 감응이 있으시기를 심고드립니다.

지난 1월 24일자 판문점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도하의 전화통지
문을 받았습니다.

정부당국과 이를 협의한 결과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귀측인사의 방문이 적절치 아니할 뿐 아니라 천도교의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일인 3월 21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으므로 앞으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남북천도교 판문점 실무접촉은 추후 3월초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만나서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앞장서자고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동학혁명 100돌 기념을 남북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뜻있고 보람있게 진행하자는 순수한 충정으로 공동 기념행사 개최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동학혁명 100돌 기념행사를 남북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는 3월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하며 또 반드시 풀리도록 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도하를 비롯한 교인 동덕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포덕 135(1994)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천도교중앙총부

교령오익제심고

23.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앞 편지 ('94. 2. 24)

천도교 중앙총부

오익제 교령 도하

안녕하십니까?

천도교단의 발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애국적 사업
에 분투하고 계시는 교령님과 동덕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교령님이 지난 2월 1일 당국과 협의하여 보낸 바 있는 전화통지
문은 교령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고 간주하면서 이미 합의한대로
갑오농민전쟁 100돐을 북과 남이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기어이 성공시키기 위해 다시금 이 편지를 보냅니다.

갑오농민전쟁 100돐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뜻깊게 기념하는 것

은 위정자들의 학정과 외래침략에 항거하였던 농민군의 영웅적 기
개와 애국애족 정신을 살려 민족의 자주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각계
각층 동포들 사이에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90년대 통일성업을
이룩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판문점실무접촉이 비록 류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어
떻게 하나 갑오농민전쟁 100돐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문제를 성사
시키려는 염원에서 제3국에서라도 빨리 쌍방접촉을 가지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나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나는 오는 3월 10일경 중국 베이징에서 교령님과 다시 만날 것을 제의하오니 교령님께서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안으로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류 며 영 삼고

1994년 2월 24일

평 양

24.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앞 편지 ('94. 3. 2)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류 미 영 위원장 도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을 비롯한 동덕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2월 24일자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동안 뜻과 같이 판문점 실무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민족의 통일과 항구적 평화를 위하여 동학혁명100주년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총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류미영위원장이 제의하신 바와같이 3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의 만남에 있어서는 총무원장 방진규를 보내고자 하오니 상응한 조

치를 취하여 실무접촉을 성사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정부당국과의 절충도 계속하여 판문점을 통한 실무접촉도 포기하지 않고 절충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한울님과 스승님의 감응이 있으시기를 심고드립니다.

포덕 135(1994)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천도교중앙총부

교령오익제심고

25. 동학혁명(갑오농민전쟁) 100주년 공동기념을 위한 남북
천도교대표들의 제1차 실무접촉 공동합의문
('94. 3. 10, 북경)

남과 북의 천도교대표들은 역사적인 동학혁명(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9일부터 10일사
이에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
에 합의하였다.

- ① 남북천도교대표들은 동학혁명(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남
과 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것은 동학혁명(갑오농민전쟁) 참
가자들의 애국정신을 살려 민족의 자주화와 전민족의 대단결
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의의가 있
다는데 대하여 재확인하였다.

- ② 남북천도교대표들은 동학혁명(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남

과 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건설적인 의견들을 교환하였으며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에서
제2차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 ③ 남북천도교대표들은 판문점에서 동학혁명 (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한 베이징접촉사
항을 재확인하고 그를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합의하기
로 하였다.

1994년 3월 10일

남측을 대표하여

북측을 대표하여

천도교 중앙총부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총무원장 방진규

부위원장 한영수

26. 대종교 총전교와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사이의 공동합의문('94. 3. 14, 북경)

대종교 안호상총전교와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류미영위원
장사이의 접촉이 1994년 3월 12일과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되었다.

쌍방은 접촉에서 전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대
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앞에 나서는 공동의 과제들과 단군릉이 발굴
된 것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
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의 대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은 전민족의 대단결을 도모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남북 대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은 전민족의 대단결이 대종교의

홍익인간정신과 천도교의 화합정신에 전적으로 합치된다고 인정하면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같은 배달민족으로서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2. 남과 북의 대중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은 민족최대의 숙원이며 지상의 과제인 조국의 통일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따라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남과 북의 대중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은 서로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1990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남과 북의 대중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은 최근에 단군릉이 발굴되고 과학적으로 고증된 것은 우리 민족이 실재한 인물이었던 단군을 원시조로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

피워온 단일민족임을 확인한 역사적사변이라고 인정한다.

5. 대종교 총전교는 북반부의 천도교인들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은 단군릉이 완공되는데 따라 남조선의 대종교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단군릉준공행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였다.

쌍방은 편리한 시기에 서로 대표들을 서울과 평양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6. 류미영위원장은 안호상총전교가 제의한 개천절을 비롯한 전례 행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남과 북에 있는 단군성지를 지정하고 복구하며 적합한 시기에 남과 북, 해외동포학자들의 단군관계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며 북반부에 대종교 북부도본사를 설치할데 대한 문제를 신중히 연구하고 해당부문에 통보한다.

7. 쌍방은 공동합의사항을 자기 교단지도인사들과 관계부문에 정확히 통보하며 합의된 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1994년 3월 14일

대 종 교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총전교 안 호 상

위원장 류미영

27. 천도교 중앙총부 총무원장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
위원회 위원장앞 편지 ('94. 3. 17)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류 미 영 위원장 도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을 비롯한 교인 동덕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제 동학혁명 백주년 기념일이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학혁명 백주년 기념행사를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하자는 총정에서 공동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3월 9·10일 제1차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판문점에서 제2차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였으나 남북관계의 현 상황에서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의 서울 방문이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천도교인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면서 인내를 갖고 계속 노력할 것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교인 동덕 여러분께 한울님과 스승님의 감응이 있으
시기를 심고 드립니다.

포덕 135(1994)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 방진규 심고

28. 제4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도교회의」결의문 ('94.5.31-6.2, 재일본 한국 YMCA)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살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자.”

(빌립2:2)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복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고후5:18-19)

1. 우리는 선교협약을 맺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 재일대한기독교회 등 6개교단과 조선기독교연맹이 1994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재일본 한국 YMCA에서 “민족 대단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

을 주제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개최한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제4차 기독교 도쿄회의에 참가하였다.

여느때보다 더욱 성대하게 진행된 이번 제4회 도쿄회의는 남과 북(북과 남)의 교회가 1995년 한반도(조선반도) 평화통일회년 실현을 위하여 그동안 일관성있게 전개해 온 평화통일운동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연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일년 앞으로 다가온 1995년 회년성취를 위한 기독교적 사명과 의지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결의하는 매우 뜻깊은 모임이었다.

2. 남과 북(북과 남)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한(조선)민족 모두의 최대의 염원은 자주적이고 자치적이며 자결적인 통일조국의 실현이다.

이러한 통일조국의 실현은 이러한 이념이나 사상, 제도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는 성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명령하신 회

년 자체이다.

사랑과 화해를 명령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회년으로서의 통일조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이나 집단이기주의, 계파나 제도간의 갈등을 배격하고 민족적 화해와 대단결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제적으로 볼 때 정치군사적 상황은 통일조국의 실현과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오히려 저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핵문제는 평화통일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직시하면서 신앙적인 우려와 염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년으로서의 통일조국은 어느 한 체제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나 정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공존과 공영의 성취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믿는다.

이제는 이를 위한 가장 구체적인 선결조건인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이 이루어 지기 위하여 이제까지 여러 모임에서 합의된 평화통일희년사업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i. 우리는 남과 북(북과 남)의 정치, 군사적인 경쟁이나 불신, 외세의 간섭이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과 북(북과 남) 정부 당국자에게 체제경쟁, 군비경쟁의 포기, 상호(호상)불가침선언, 외세의 간섭을 배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i. 우리는 한반도(조선반도)의 핵문제가 강자의 논리에 의하여 부당하게 알려지고 처리되는 대신에 한민족 모두의 공존을 위하여 정당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i. 우리는 한민족의 거룩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는 한반도(조선반도)에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분위기를 조장하는 군사훈련 실시를 절대 반대한다.

i. 우리는 우리의 평화통일 선교운동이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 더 나아가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믿으며 구체적인 통일기원기도회와 연합예배, 선교교류, 상호(호상)간의 선교유적지 탐방, 선교역사 공동집필,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i. 우리는 평화통일선교운동을 이룩하여 남한교회등이 북조선 지역에 교파주의를 조장하거나 정복주의적 전도운동을 행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북조선교회에게는 평화통일운동이 한반도(조선반도)내에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i. 우리는 해외동포교회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전개해온 고난에 찬 평화통일선교운동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최근 재일동포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일련의 불평등 대우와 횡포사태에 대하여 깊이 염려하면서 일본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i. 우리는 남과 북(북과 남)의 모든 교회들과 해외동포교회들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일관성있는 평화통일선교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적극 후원할 것이며 통일조국의 실현을 추구하는 모든 단체들의 평화통일운동을 존중하고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

4. 한반도(조선반도)에서의 회년실현은 한민족의 통일조국의 성취이다. 우리는 자주, 자치, 자결국가로서의 이러한 통일조국이 조속히 실현되기 위하여 모든 선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9.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민족자주통일 불교
운동협의회」 의장 지선스님앞 편지('94.6.1)

종단의 화합과 평화, 조국통일을 위하여 일심정진하고있는 스님
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단군조상의 한 피줄을 타고난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진
때로부터 어언 반세기의 년륜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애타게 바라고있는 조국통일은 아직도 성취되지
못하고있으며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분렬의 고통은 커만 가고있
습니다.

온갖 고로부터의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보살도의 실천행을 하고있
는 참된 불자라면 마땅히 「밭고여락」의 리념을 만들어 분렬의 고통
을 없애고 3천리 조국강산을 현세의 지상정토로 만들기 위한 성업
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실히 바라고 있는 「밭고여
락」의 리념도, 지상정토건설의 목적도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고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랭전이 종식된 오늘까지 우리 나라가 세계의 유일분단국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민족의 더없는 수차이며 비극입니다. 더우기 내외반동들의 핵전쟁책동으로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정세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시시각각으로 엄중히 위협하고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핵전쟁위험을 막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과업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화해, 화합에 기초한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하기에 지금 7천만 겨레 모두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90년대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가고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조국통일을 기원하여마지않는 참된 불자라면 마땅히 겨레의 힘찬 통일대행진에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조국광복 49돐을 계기로 북과 남·해외의 모든 사찰들에서 8월 14일(일요일)에 일제히 「조국통일기원 북·남·해외동포 불교도 동시법회」를 가지고 여기에서 같은 내용의 「90년대 통일실현을 위한 불교도선언」을 동시에 발표할 것을 제의합니다.

귀 단체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나서리라고 믿으면서 편지와 함께 보내드리는 「90년대 통일실현을 위한 불교도선언」에 대한 고견을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행에 언제나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합장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선사 박 태 호

서기장 선사 삼 상 련

1994년 6월 1일

〈참고〉 '90년대 통일실현을 위한 불교도선언(안)

오늘 우리 북과 남·해외의 모든 불교도들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90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념원을 안고 조국 광복 49돐을 맞으며 북과 남·해외의 모든 사찰들에서 일제히 「조국통일기원 북·남·해외동포 불교도 동시법회」를 가지었다.

7천만 겨레와 함께 민족분렬의 고통과 설움을 안고 비록 북과 남·해외에서 각각 조국통일기원법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우리 불교도들의 통일념원과 의지는 지역적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로 잇닿아있다.

우리들, 북과 남·해외의 모든 불교도들은 조국통일은 7.4남북 공동성명에서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대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0년대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불교도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우리들은 화해·화합의 사상으로부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기초로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우리들은 조국통일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서 있는 조건에서 서로 먹지도 먹히우지도 않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편방제방식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전쟁을 인간에 대한 최대의 악행으로, 평화를 최대의 자비로 삼고 불살생의 계를 준수하는 우리들은 우리 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군대와 핵무기는 철수되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연습은 중지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우리들은 조국통일에 방해되는 모든 법률적·물리적 장치들

은 개폐되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북과 남·해외의 모든 불교도들은 현세기안으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7천만 겨레와 함께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조국땅에 태를 묻고 태어나 주도정진하고있는 참된 불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갈것이다.

조국통일기원 북·남·해외동포 불교도 동시법회

참가자 일동

1994년 8월 14일

30. '95 평화통일 공동기도문('95.1.1, KNCC 작성)

적개심의 답을 열고 화해의 십자가 지게 하소서

온세계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50년

남과 북이 분단된 지 50년을 맞는 1995년 이 아침에

남북교회가 세계교회와 더불어 화해를 맞이하는

새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회년의 땅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

생명과 일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의가 없어지고
불의가 만연한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주저했고,
세계 도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평화를 위해 일하지 못했으며,
생명의 삶을 살기보다
생명을 죽이는 물질주의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고,
인종과 민족과 성과 빈부를 차별하고
교회간에 장벽을 쌓았으며,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신의 장벽을 쌓고 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대항해 싸울 수 있게 힘주시고,

평화를 일구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적개심의 담을 헐고 화해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희년의 하나님,
이제 1995년 통일희년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동터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희년을 향해
십검과 나뭇으로 열리게 하소서.

그리고 50년동안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에게
희년정신이 가득찬 통일을 허락하소서.

희년의 기쁨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세계를 향해 회년의 나팔을 불며

이 세계의 회년을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하여 고통받는 이 세계에 정의와 평화,

평등과 해방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다함께 : 회년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 제4차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교 국제협의회」 ('95. 3. 28-3. 31, 일본 교토)

○ 남북교회간 실무접촉시 공동선언문 ('95. 1. 27-1. 28, 북경)

대한민국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들은 1995년 1월 27-28일 중화인민공화국의 베이징에서 만나 남북교회간 접촉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에큐메니칼 협력에 관해 토의하였다. 이 모임은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의 주선으로 열렸다.

이 모임에서 남북교회의 대표들은 세계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는 남북교회가 1990년 스위스 클리온에서 가진 제3차 협의회에서 ‘희년’으로 선포한 1995년의 3월에 일본에서 열기로 하였다. 국제협의회에서 다루어질 분야별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통일희년 성취를 위한 공동노력
2. 통일을 저해하는 법적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공동대응
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실현을 위한 기독교의 공동대응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 및 군축의 공동과제
5.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

제4차 협의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 외에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에큐메니칼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세계교회의 대표들도 함께 참석할 것이다.

남북교회의 대표들은 이번 준비모임이 기도와 친교와 상호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해 준 세계교회협의회 측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만남은 세계교회협의회와 국제문제위원회의 드웨인 엡스 국장이 진행하였으며 아시아 총무 박경서 박사가 회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주선해 주었다.

남북교회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김동완 총무

강문규 통일위원회 기획정책분과위원장

박종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조선기독교도연맹 : 황시천 국제부장

김남혁 국제부 책임지도원

리종로 통역관

○ 공동선언문

회년의 삶 속으로

“오십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가 회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레위기 25:10)

1. 개괄

「한반도/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가 1995년 3월28일부터 31일까지 일본 교토 간사이 세미나 하우스에서 열렸다. 이 협의회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에서 5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21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아울러 아시아 기독교협의회(CCA)와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일본, 필리

편, 러시아, 영국, 미국의 교회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국제문제위원회(CCIA)가 주최하였으며 일본기독교협의회(NCCJ)가 회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 주었다. 이 협의회의 의제는 지난 1995년 1월말 중화인민공화국의 북경에서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의 주선으로 열린 예비회의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기독교도연맹이 합의한 의제에 따라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예배, 기도, 성서연구, 성만찬, 주제별·신학적 발제와 아울러 깊이 있는 대화와 다양한 의견의 교환을 통해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한 긴급한 실천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석자들은 “도잔소 과정”과 이전에 열린 세차페의 글리온 협의회의 정신 안에서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재다짐하였다. 한반도/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과 북/

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간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접촉을 열어준 세계교회협의회 주최 「동북아시아 평화와 정의협의회」(1984년 일본 도잔소)가 열린지 10년이 지났다. 이후 세계는 현저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불행하게도 냉전의 영향력은 아직도 통일과 민족의 치유를 열망하고 있는 한반도/조선반도의 민중들에게 생생한 현실로 남아 있다.

2. 통일을 위한 회년의 해

「한반도/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1988년 글리온선언」에서는 한반도 해방 50주년이자 민족분단 50주년이 되는 1995년을 “통일회년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후 7년동안 한반도/조선반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아울러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통일회년”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업들을 전개해 왔다.

우리의 외침과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종종 주저하고 의심하고 불신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계약은 우리의 희망과 견고한 반석으로 남아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회년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의 장점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회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받은 바 축복에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고, 회망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해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불복종스럽고 다툼을 좋아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임을 고백한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증오때문에, 그리고 사랑과 신뢰가 없어 분열되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회년의 때와 시기를 아심을 우리는 인식한다.

회년은 하나님께서 정의의 천칭을 맞추시는 능력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해이다. 회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우리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셨다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해이며, 우리들에게 빛진자를 우리가 탕감하는 해이다. 회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신실하심을 재확인해 주기에 우리

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화해하여야 한다.

협의회 참가자들은 한반도/조선반도 통일에 대한 갈망이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을 아프게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의 징후를 보여주는 삶의 길을 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화해함 받은 백성들로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또한 회년의 개념이다. 우리들의 하나가 되려는, 또 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삶을 창조하려는 실천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회년은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여를 의미한다. 우리는 회년의 과정에 여성과 청년을 완전한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참여시키는데 부족하였음을 고백한다. 우리가 참여적인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에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3. 합의된 실천사항

회년을 맞는 금년에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긴급한 과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굳게 확신하면서 본 협의회는 한민족/조선민족을 분단시켜 놓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씨름했다. 솔직한 토론과정을 거쳐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한 여러가지 실천사항을 합의했다.

1) 함께 회년을

협의회는 지난 세차례에 걸친 글리온 협의회가 합의한 결의들을 존중하면서 1995년의 통일회년에 조선기독교도연맹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판문점에서 8.15회년공동예배를 개최하는 결의를 한 데 대해 적극 지원한다. 이 회년 공동예배 개최에 관한 합의는 「통일회년을 맞는 조선기독교도연맹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합의문」에 명시될 것이며 이 선언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2) 한반도/조선반도 통일의 법적 장애물 제거 방안

협의회 참가자들은 한반도/조선반도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 및 그에 상응하는 법률 안에 담겨있는 온갖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일 것에 합의한다.

3) 남북/북남 기본합의서 실천방안

협의회는 1991년 12월에 합의된 「북남/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글리온 2,3차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결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 전면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4) 비핵화 실현과 군축방안

협의회는 1992년 9월 합의된 「한반도/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의 전면적인 이행을 촉구하기로 한다.

또한 조미/북미 기본합의문이 이행·구현되어야 한반도/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의 길이 열리게 되리라는 희망을 강력히 피력한다.

5) 인도주의문제 해결의 방안

협의회 참석자들은 한반도/조선반도 전체에서 인도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 것을 촉구하면서,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을 회년의 해에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도록 당국에 요청하기로 한다. 이밖에도 회년의 정신은 모든 구속된 자의 석방을 의미함으로 분단과 대결로 인하여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피해자들이 한반도/조선반도 양측에 있다면,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협의회는 남과 북/북과 남의 기독교인들이 세계기독교공동체와 연대하여 소위「종군위안부」라 일컫는 「정신대」문제에 대하여 즉시

사과하며 응당한 보상과 배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기로 한다.

참석자들은 이들에게 가해진 불의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면서 억압하는 가부장적 세계관에서 직접 비롯되는 것이며 동시에 전쟁과 분단의 참화에 가장 처절하게 희생당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들임을 인정한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는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으리라.

나는 맹수를 너희 땅에서 몰아낼 것이며 너희의 땅을 휩쓸지 못하게 하리라”

(레위기 26:6)

○ 공동합의문

민족의 해방 50주년이 되는 1995년 8월 15일을 남북/북남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온겨레가 함께 경축하고 뜻을 새겨야 할 민족적 축제의 날로 이미 오래전에 평화와 통일의 회년의 날로 선포하였다.

회년을 맞이하여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최한 <한반도/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 국제협의회>에 참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기독교도연맹의 대표들은 민족해방 50돌을 민족통일의 대축제로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회년공동예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 1995년 8.15 회년공동예배를 판문점에서 함께 드리기로 한다.
2. 회년예배와 행사의 준비, 진행을 위한 모든 실무적 문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기독교도연맹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추진한다.

3. 회년예배와 행사에는 남북/북남과 해외의 다른 교단들도 참가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범교단적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한다.
5. 회년예배와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기독교도연맹 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장소에서 양측의 실무대표들 간에 준비회의를 갖도록 한다.

1995년 3월 31일

교토 간사이 세미나 하우스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회 장 오 충 일	위 원 장 강 영 섭
총 무 김 동 완	부 장 황 시 천

○ 북한측 발표문

통일 희년을 성취하기 위한 교회의 과제

강영섭(목사,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나는 오늘 세계교회협의회와 여러 나라 민족 단체 대표들과 이처럼 자리를 같이하고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과 시대의 중대사를 동의할 수 있게 된 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노력과 활동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으며, 이번에는 네 번째로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는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임직원 여러분들과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대표 여러분들에게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의 전체 기독교인들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시합니다. 또한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조국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민족의 심

자가를 지고 굴함 없이 노력하고 있는 남녘의 여러 성직자와 교우에게 굳은 연대성과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중략)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조선 통일의 원년으로 되기를 것처럼 바라고 기다려 온 '통일 회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포한 '통일 회년'은 하느님께서 제정해 주신 '회년법'에 준한 것입니다. "50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지킬 해이다" (레 25:10). 하느님께서 제정해 주신 회년은 종말론적 계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그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선포한 '통일 회년'은 인위적으로 갈라진 강토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 단란하게 살아 온 민족 본래의 참 모습을 되찾는, 공고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통일 회년'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충분히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통일 회년' 성취를 위한 행동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함께 걸어왔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세계교회협의회가 도잔소 회의를 마련한 때부터 어언 10여년이 흘러갔으며, 조선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놓았습니다. 이 기간에 3차에 걸치는 글리온회의가 소집되었으며, 특히 제2차 회의에서는 "글리온 선언"을 채택하고, 1995년을 '통일 회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글리온 회의에서는 그 실현을 위한 "회년 5개년 공동사업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리온 회의에서는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선의 북과 남의 두 체제를 인정하고 통일 국가를 세울 데 대한 분제, 모든 외세를 배제하며 북남 사이에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고 군비를 축소하며, 군사적 대결과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중지할 데 대한 분제, 통일을 위해 활동하다가

투옥된 인사들을 모두 석방할 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의 민간급 접촉과 상봉의 장애 요인으로 되는 모든 법률과 제도를 폐지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을 천명하고 그 실현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 기간에 미국 전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책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조선의 평화와 통일,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에서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독교인 도쿄 회의를 4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중요한 결의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기독교협의회와 캐나다 연합교회 등 세계 여러 나라 교회에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1995년을 “통일 회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멀고도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 회년'을 성취하려면 헤 누은 일보다 헤야 할 일이 더 많으며,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탄탄한 대로가 아니라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들을 뽑아 내고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나가야 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유리한 조건은 옹게 이용하고 어려운 조건은 서로 힘을 합쳐 뚫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비교적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냉전 체계가 허물어지고, 특히 지난 해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에 역사적인 '기본 합의문'이 채택 발효됨으로써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데 유리한 국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반도에는 비정상적인 분단 상황이 반세기가 되도록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과 남 사이의 대결과 긴장 상태는 더욱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1940년대에 시작된 조선의 분열이 1990년대 중반기에 들어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민족 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세계 평화와 안전의 견지에서 보나, '회년법'의 견지에서 보나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역사의 비극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며 진리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조선 민족의 불행의 화근이며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분열을 끝장내고 참다운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은 믿음, 사랑, 소망 속에서 사는 기독교인의 본분이며 우리 교회들의 중대한 과제입니다. 나는 '95 통일 회년'을 허락하신 하느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올해를 통일 조국을 창조하는 데서 역사적인 해로 빛나게 장식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조선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올해에 조국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으려는 일념을 안고 거족적인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4일 공화국의 정당 단체들은 연합 회의를 열고 올해

의 뜻깊은 8·15에 판문점에서 해내외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 해방 50돌을 전민족적으로 성대히 경축할 것을 밝히고 3월에는 조국 해방 50돌 경축 북측 준비위원회도 결성하였습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데서 올해 8·15 판문점 대축전은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국 해방 50돌 통일 대축전은 반세기의 분열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대광장입니다.

또한 8·15 50돌 민족 대축전은 해내외의 온 겨레들이 전민족 대단결의 기치 밑에 한 사람 같이 뿔쳐 일어나 민족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을 앞당겨 올해 8·15 50돌 경축 통일 대축전에 적극 참가하여 축전을 빛나게 장식할 것입니다. 우리 북, 남, 해외 동포 기독교인들이 판문점 축전에 함께 참가하게 되면 이 기회에 통일 기원 공동 예배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포 기독교인들이 제 나라, 제 땅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글리온 3차 회의에서 합의한 “희년 5개년 공동 사업 계획”에도 부

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의 대축전장에 자리를 같이하며 판문점 8·15 통일 기원 공동 예배를 성과적으로 개최하려면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통일 운동 역사의 심각한 교훈이며, 오늘 현실이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나는 세계교회협의회와 모든 회원 교단 및 단체들이 앞으로도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하게 광범한 국제 여론을 확산시키며 조선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벌려 줄 것을 바랍니다.

당면하여 세계교회협의회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에 대한 실태를 현지에 와서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사실 그대로 세계의 각국 교회와 언론계에 통보해 줌으로써 그것을 제거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또한 조선의 통일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관국가의 교회와 단체들은 당국의 대조선 정책을 변경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 실현에 긍정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연대 활동을 벌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여러 나라의 교회와 단체들은 당면하며 조선 통일의 실질적인 장애물인 '국가보안법' 과 안기부를 철폐하며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을 '회년' 인 올해에 가족 친척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송환하기를 정식 촉구하여 반드시 실현시켜 줄 것을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모든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회의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결실을 가져올 역사적인 회의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32.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 지선스님앞 편지('95.4.17)

우리 종교인협의회대표단과의 접촉을 위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베이징까지 나오게 된 용단을 내린 스님에게 우리의 인
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는 스님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이징까지 온 스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종교인협의회
대표단편으로 편지를 전하게 됨을 널리 량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스님, 우리는 오는 8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리게 될 조국해방 50
돛 경축 민족통일대축전에 스님을 초청하는 편지를 지난 2월에 직
접 보내었으며 우리의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서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청에 대하여 스님께서 이미 알고계시리라 보

며 또 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호응하라라는데 대하여서도 믿어의
심치 않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스님이 직접 우리와 만나지 못했다하더라도 우
리 종교인협의회대표단과 8.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문제를 잘 토의
하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8.15판문점민족통일대축전장에서
뜻깊은 만남이 이루어질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진관스님, 월주스님, 법타
스님들에게도 초청편지를 보내엿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의로운 실천행에는 언제나 부처님의
가호와 가피력이 함께 따를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합장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선사 박 태 호

1995년 4월 17일

33. 조계종 문화사회부장의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앞 편지
('95. 4. 22)

남과 북이 분단이 된지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민족의 숨결과 줄곧 함께 해 온 민족종교의 적자인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조국의 통일에 대해 그 어느때 보다도 간절한 염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 대중들의 염원은 불교도들의 비원이면서 역사에 대한 엄중한 책무로서 불교인들의 지대한 역할을 역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의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민족통일을 향한 노력의 하나로서 오는 “부처님 오신날” (사월초파일)을 맞이하여 남북 불교도가 법요식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리하여 저희 조계종대표 2인(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장:시현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주통일위원장 : 법안스님)은

법요식 공동개최를 위해 북경에 와 있습니다만 북이 저희쪽의 제안을 아직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실무회담이 이루어 지지 못함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북쪽의 종교인들을 대표해서 조선종교인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재철 선생을 만날 수 있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계종이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공동법요식 실무회담을 5월 2일 이전에 제2차로 이루어 질수 있으면 더욱 좋을것 같으며, 시간상 그것마저 어렵다면 상호간에 팩시밀리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이번 부처님 오신날 공동법요식이 기필코 성취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 입니다.

제2차 실무회담은 남과 북이 가까운 북경이나 일본이면 좋겠으며, 장소와 일정은 북쪽의 의견을 빠른시일내에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행사자료를 장재철 위원장님 편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 공동법요식은 남에서는 조계사, 북은 보현사 또는 북한 불교를 상징하는 사찰이면 가능하며 북의 사정에 따라 정하셔도 무방하며 법요식 행사내용을 완전히 통일시키기 어렵다면 남과 북의 실정에 따라 그 내용을 채우고 식순을 함께 할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남쪽의 5월 7일 법요식에 따르면 전체식순과 봉축사 축원 발원문의 내용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남북한 부처님 오신날 공동법요식의 논의를 계기로 앞으로 남북불교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라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아울러 기대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면서 박태호선사를 비롯한 모든 스님 및 북의 불교도들에게 부처님 자비광명이 항상 드리우길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불기 2539(1995)년 4월 22일 북경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

부장 시현 합장

남북종교교류 관련 자료집

인 쇄 : 1995년 9월 일

발 행 : 1995년 9월 일

발 행 처 : 남북회담사무국 운영2부

사회문화회담과

(Tel. 730-3655)

인 쇄 처 : 진아기획

(Tel. 278-2955)

〈비매품〉